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水)
本紙朝夕刊十二頁

四川省成都에서 日本人四名殺傷
日本領事館設置反對의 抗日示威群衆에게被襲

【上海二十五日發同盟】 當地官憲에 着電한바에 依하면 二十四日午後六時頃 四川省 成都에서 中國人抗日團에게 日本人四名이 襲擊되어 其中二名은 殺害, 一名重傷 一名은 行方不明으로되엿다

詳細는 不明하나 四名의 日本人은 成都總領事代理에 任命된 岩井英一氏와 함께 前月末上海로부터 揚子江을 遡江하야 去十七日 重慶에 到着하엿는데 岩井氏는 中國側의 阻止로 重慶에서 떠날수업서 一行은 岩井氏와作別하고 單獨成都에 赴한것인데 一行의氏名은 左와如하다

大每上海特派員 渡邊洗三郎(兵庫縣)
上海每日新聞四川特派員 深川經二(佐賀縣)
滿鐵上海事務所員 田中忠夫(福岡縣)
漢口在住日本人商人 瀨戶尙一

【上海二十五日發同盟】 重慶으로부터 大使館에入電한바에依하면 二十四日 午後三時 成都小城公園에서 日本領事館設置反對, 岩井總領事代理入川阻止의 民衆演說會가 開催되여 共產黨의激烈한 煽動이잇고 右終了後 午後六時頃 日本旅行者一行이 宿泊하는 大川旅館에 暴民一隊가『打倒帝國主義』『復抗日運動』을 絶叫하면서 殺到하야 公安隊의 制止도 效果가 업시 一行의房에 亂入하야 暴行을加하고 撤去하엿다 그리고重慶의 當局公署에서는 日本側에 遺憾의 意를 表하엿다

眞相判明따러 嚴重抗議提出

【南京二十五日發同盟】 成都에 發生한 日本人襲擊事件은 國民政府에도 簡單한 入電이잇고 日本人四名中二名殺害 一名重傷一名行方不明으로되여잇다 外交部에서는 問題의 重大性에 鑑하야 二十六日 歸京할 張群部長을 마지하야 其前後工作을 協議하기로 決定하엿다 日本側에서는 眞相이 不明함으로 公電到着되기를 기다려 嚴重抗議를提出할터이다

日本總領事館의 開館阻止에 發端
被襲된四人은成都에强行한것
外務省當局事態重視

【東京電話同盟】 四川省成都에서의 日本人記者四名 襲擊事件은 成都總領事館 再開에際하야 四川省政府當局이 此를 積極的으로 阻止하야 對日空氣가 惡化되고잇든때인만큼 外務省當局은 極히 重大視하고 公電到着을 苦待하고잇다 成都總領事館은 滿洲事變後 排

政府軍軍用機三臺 叛軍要地를爆擊
산세바스찬方面에向하야叛軍總攻擊準備
挺身隊에牧師도參加

【앙데二十五日發同盟】 政府軍軍用機三臺는 二十五日 午後北西班牙기프스코나 戰線叛軍要地에 果敢한 爆擊을加하야 多大한損害를 與하엿다한다

【앙데二十五日發同盟】 西班牙叛軍은 赤軍이死守하는 산세바스찬及 이룬에對하야 最後的總攻擊을하기로決定하고 先發挺身隊七百名은 二十五日 이미산세바스찬東南七哩의 오얄스레에到着하엿다 挺身隊中에는 多數의牧師도 參加하엿다한다 이에對하야 산세바스찬政府軍은 着着反擊準備를 整頓하고잇는바 近近同方面에서 激戰이 展開되리라고 觀測된다

駐日、西公使 叛軍贊同을聲明

【東京電話同盟】 駐日西班牙公使 데비고氏는 本國의 動亂에 關하야 二十六日正午에 大要 左와如한 聲明을 發表하엿다

駐日西班牙公使 同參事官及神戶駐在領事等은 本國에서이러난 動亂에關하야 最近新聞紙에依한 報道外에는 何等報道도 接受치못하엿스나 프랑코將軍 카바네라將軍及 모라將軍을首班으로한 叛軍의 行動에 絶對的으로 贊同하고 去七月以來 마드리드政府와 其關係를 斷絶한것을 玆에聲明한다 前揭의將軍等은 其生涯를通하야 純粹한 愛國者로 祖國西班牙의 光輝잇는 歷史를 保護하기를 理想으로하는士이다

國府米蘇大使更迭

【南京廿六日發同盟】 國民政府行政院會議는 左의外交官異動을決定하고 廿六日 正式發表하엿다

國民政府委員 王正廷 任特命全權大使(米國駐箚)
行政院政務處長 蔣廷黻 任特命全權大使(蘇聯駐箚)
駐米全權大使 施肇基 依願免本官
駐蘇聯全權大使 顔惠慶 依願免本官

行政機構改革으로 政府難關逢着乎
陸軍、根本的改革要望

【東京電話同盟】 行政機構의改革은 二十五日 閣議에서 正式決定되여 重要國策項目中에도 採擇되엿고 一方陸軍에서도 國策의實施와 併行하야 行政機構의 根本的 改正을 强硬히 要請하고잇는데 廣田首相이 要望하는 行政機構의 整理改善은 이미首相이 再三言明한바와如히 國策의實施에對하야 從來의機構에不便이生할境遇에 最大限內容에應하야 積極的으로 改善하려하는것으로 例하면 貿易局或은 航空國策에 伴하는 航空省設置와如한 改善을意味하고 所謂 內閣制度改善은 無任所大臣設置 內閣調査局擴充과 如한 根本的 政治機構改革等과는 依然히 距離가 멀므로 今後陸軍의 要求를容認하는限에 軍의 意見으로는 今後國策의 實施에 當하여는어데까지 根本的 改革의實現을 要望하리라고 觀測되는바 首相이 從來의見解를 變更치안는限 機構問題는 依然重大化할 憂慮가 잇스리라고 注目된다

國策豫算化實現 陸軍側强硬要望

【東京電話同盟】 二十五日 閣議에서 正式決定된 重要國策에對하야 陸軍은 그 主張한 大綱을 若干部分하야 項目으로 列擧한데 不過하고 너무 抽象的이라고 不滿을 갓고잇는데 國策을 決定한以上은 其抽象的 國策을 速히 豫算化하고 其實現을 期하야 國民의 期待에副하지안흐면 안될것이라한다 그리고 今回決定된 國策은 其一部는 多方에 分하야잇슴으로 이를 全面的으로 實現함에는 莫大한 豫算이 必要하다 當初에 發表한 政綱으로 抽象的項目化하는데 五相會議를 거듭한 狀態로 너무나 遷延하는 … 로決定된國策의 實現이 遲延된다면 陸軍當局은 … 리라고 想像되며 적어도 明年度豫算에 其根幹이 될 重要國策이 具現되지안흐면 廣田內閣存續의 意義는 認定되지안는다고 하고잇다

海軍도國策의 急速具現化要望

【東京電話同盟】 海軍에서는 廿五日에決定된 庶政一新의七大國策實行에對하야 熱意를가지고 其急速한 具現化를 要望하고잇는 七項目에 關하야 海軍省으로서의 意見을 決定하기爲하야 이미長谷川次官을 中心으로한 海軍側調査會第一分科會에서 國策의 具現化의實行에關하야 海軍意研究調査를 急히 하고잇는데 이 抱懷한意向은 大體로 左와如하다

一、國策具現化에 關하여는 實行第一主義를 唯一로할方針이다

一、決定된 國策七項目의實施順序는 어떠케決定할것이나 其國策遂行에 際하야는 具體化에 對한 방침을 必要한 順序로 잇을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 할것이다

一、軍으로서는 國防充實을 第一義로 할것은 勿論이나 農山漁村經濟更生振興及 中小商工業의 振興等 重力的强化 外國策及 農漁村 日本人海外發展助長에 對하여는 特히 注力하야 其急速實行에 熱意잇는 協力을할 政府가 最善으로 信하는것은 一路邁進할것이다

滿蘇國境問題로 有田外相、蘇大使와會見

【東京電話同盟】 駐日蘇聯大使유레니에프氏는 本國政府의 訓電에 基하야 二十五日午後三時外務省에 有田外相을訪問하고 滿蘇國境紛爭處理 國境確定兩委員會問題에關하야 일즉有田外相으로부터 提示한 日滿側提案中疑問點에對하야 左와如한 問答을 거듭하고 同四時 辭去하엿다

유레니에프大使는 從來의會談에잇서서 東部國境에 兩委員會를 設置함에는 蘇聯側도 同意하엿스나 其他의國境에잇서서는 紛爭處理委員會만을 設定하고 國境確定委員會는 設置치안는것도 適當하다고 생각한다 日本側 提案에依하면 이點이 明瞭치안흐나 日本側의 眞意는如何

라는 것을 하나로 質問한데 對하야 有田外相은

一、東部國境은 蘇聯側의 意向대로 兩委員會를 設置할方針이다
一、東部國境以外의 國境에 對하여는 從來의 日滿蘇間의交涉을 繼續하야 漸次 東部國境과 同様의 事態로 引導할方針이다

라는 日本提案의 主旨를 說明하엿다 따라 유레니에프大使는 本國政府에 右主旨를 傳達할旨를 答하나 蘇聯側의 回答案은 이미 調整된模樣인바 莫斯科政府로부터 近日中에 日本側에公式回答을 提示하야 國境委員會交涉은 再次 軌道로 復歸되리라고 觀測된다

스테이트멘트

今回朝鮮總督의 大命을 拜受하고 今日玆에 第一步를 드디게되엿다 朝鮮은 일즉 軍司令官으로 勤務하엿고 今日에온것은 六年만이다 軍司令官在任中에 朝鮮各地는大體로 視察하엿고 國防及治安關係에 基하야 視察하엿슴으로 朝鮮의 事情은 이미知面하고잇스므로 자못愉快하다 前般朝鮮에 올때의 任務는 軍司令官에 勤務하엿고 一般觀察을 行하엿는데 今回는 總督으로 統治産業經濟諸般에亘하야 最善의努力으로 一意奉仕할생각이다 今日은 世界를 通하야 容易치안흔 危機이다 歐洲에도 不安狀態가 繼續하야 特히 西班牙에 잇서서는 其內亂의 波及이 歐洲各國에 及하여잇는 狀態이다 도리켜 東洋에잇서서는 蘇聯을 爲始하야 中國本國에잇서서도 其政情이 安定이라할수업다 況且 日本의 將來에 當하야 幾多의 障碍가 非常한 努力으로써 進行하지안흐면 이를 突破할수업다 그리고 日本의 重點은 去益增加하는데 滿洲國과 朝鮮의 不可分關係를 根底가잇는것이다 滿洲國과 朝鮮과는 接壤, 따라 朝鮮에잇서모

南總督京城到着
官民多數의歡迎裡에

二十六日午前六時三十分 釜山에 第一步를 내드든 新總督 南次郎은 京釜沿線에 新總督을 歡迎하기爲하야 集合한 地方官民의 歡迎裡에 臨時急行 第七六列車는 南總督을 中心으로 令孃友子氏를 爲始하야 鹽原秘書官 新貝人事課長 其他 途中까지 出迎한 田中警務 富永學務 吉田鐵道各局長 鵜池海軍 藤村陸軍兩御用掛以下 名士多數를 태우고 一路京城에 驀進하엿다 如斯히 午後三時十分 列車는 驛에 到着하매 驛에는 먼저着任한 大野政務總監을비롯하야 小磯軍司令官 三宅師團長 朴泳孝侯 總督府各局課長 在城外交團其他 軍部, 財界民間各有力者 諸團體代表者等約二千名으로 채워잇고 列車最後部展望車로부터 나린南總督은 一同에게인사하면서 石崎京城鐵道事務所長 春田京城驛長等의 案內로 一旦驛貴賓室에入하엿다

驛으로부터 沿道堵列의諸團體學校生徒兒童代表一般府民等에歡迎되며 朝鮮神宮에正式參拜 着任奉告를하는同時에 神前에 暫時 默禱하고 그로부터 昌德宮李鍝公家 李鍵公家에 各各伺候後 午後五時 倭城臺官邸에入하야 官邸에서待하던 大野政務總監以下總督府各局長 官房課長等의歡迎裡 祝盃를맛고 破顔一笑하엿다

獨逸의常備兵力 七八十萬에到達
兵役延長結果를宣傳省發表

【伯林廿五日發同盟】 獨逸政府는 二十四日突然陸海軍兵役期間 延長의 緊急令을 發布하얏는데 二十五日 獨逸宣傳省은 來十月로써 獨逸常備兵力은 七十萬乃至八十萬에 達하리라고 發表하엿다

宣傳省의 發表는 左와如하다

一、兵役延長令은 目下入營中인 一九一四年生壯丁부터 適用하야 今後다시 一個年現役에服케함
一、따라서 今年十月부터 新兵入營과同時에 獨逸常備兵力은 七十萬乃至八十萬에 達함

北中問題의對策 根本方針不變
◇…松室特務機關長 談

【北平廿四日發同盟】 天津에서열린 武官會議에 出席하엿든 松室北平特務機關長은 二十四日에 歸平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冀察政權을 援助하야 北中의 安定에 邁進하는 日本의 根本方針에는 何等變更이 업다 이日本의 方針을 阻害하는者가잇스면 斷乎排擊하고 이에 副하는者는 크게援助할方針이다

問題의 性質上 南京政府의 協力을 必要하는것은 外務當局에서 其實現을 爲하야 折衝할터이라 天津會議의結果 陸海外三省의意見이 一致되엿슴으로 今後對中方針은 完全한 一元化로 보게되엿다

人面錄

◇ 國策項目만은 艱辛히決定하엿스나 具體的實行이 어찌될는지問題.
◇ 그中에도 行政機構의 改革에 關하야는 陸軍側에서 强硬意見이잇다고.
◇ 貿易局이니 航空省이니보다 內閣制度의根本的改革이 話題에 오르는模樣.
◇ 省의 聯合을 보기前에 無任所大臣한자리쯤이 되는形勢.
◇ 廿八億乃至卅一億의 豫算이 決定되기까지에는 藏相의 數字가 오르락나리락할것은 勿論이지만.
◇ 一般財界와 民衆生活의安定도 速히 바라기는 어려울듯.

白頭山探險記

⑤ 徐椿

茂山發展의動力
原木採伐과鐵鑛

午前十一時四十四分에 茂山에 到着한 우리 一行에게는 아직도 八月八日이라는 한날의 後半日의 時間이 남어 잇다。우리가 白頭山을 向하야 徒步를 始作해야 될 農事洞은 茂山서 다시 西行一百八十里의 地點에 잇다 그러나 이 兩地間에는 自働車가 잇고, 茂山서 農事洞까지를 自働車로 가는데는 所要時間이 約四時間밧게 아니 된다。그러므로 八日의 後半日을 가젓스면 悠悠히 農事洞까지 갈수가 잇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日程에 八日에는 茂山에서 一泊하도록 되여잇는것은 그러할 理由가 잇기때문이다。

첫재 本社側團員二名이 우리 一行보다 三四日 몬저 떠나서 茂山에서 留하고 잇는 一事로 推測될바와 가티 露營六泊에 要하는 飮食物의 準備도 茂山서 購入해야만 便利한것이 잇고, 營林署에 對한 動植物採取許可, 警備 그他의 官廳에 對한 手續未盡의 分도 이곳서 할 必要가 잇고, 또 團員各個人으로 보아도 準備未及의 分은 이곳서 求할 必要가 잇기때문으로 이 모든 必要에 應하기 爲하야 日程表에 八日 茂山一泊을 너은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團員大多數에게는 八日後半日이라는 달리 利用해도 無妨할 時間이 남어 잇섯다。이 餘暇를 利用하야 一行中二十餘名은 茂山邑으로부터 東方約十里許에 잇는 茂山鐵鑛을 보러가기로 햇는데 나도 거기 한목 끼웟다。

茂山有志尹衡弼氏의 中間斡旋及案內에 依하야 一行二十餘名은 트럭크 한臺를 어더서 타고 三菱經營의 茂山鐵鑛에 차저 갓다。때는 八日午後三時頃이다。이곳의 鐵鑛地帶를 概言하면 東西數十里를 若干의 高低를 보이면서 連走한 높히 約一千米突의 山이 잇는데 이山의鑛床은 一南一北으로 東西數十里를 平行竝走한 兩大鑛脈이 잇다고 한다。分析의 結果에 依하면 鐵은 低品側에 드는것이나 量의 豊富로써 質의 貧弱을 補足하면 數億이 마즈리라는 豫想下에 着手한것이라고한다。

只今은 아직도 鑛脈探査를爲한 試掘期에 잇다。正式으로 採掘을 開始할期限은 아직 相當히 멀다는듯이 말한다。

試掘期에 잇는 同鑛은 現在, 高低標準으로 보아 上中下三層를 擇하야 山을 南으로부터 北을向하야 뚤코 잇다。東部坑道, 中央坑道, 西部坑道라는것이 그것이다。

同鑛事務員二名의 親切한 案內에限하야 一行은 二隊에分하야 鑿岩用空氣壓搾所, 西部坑道及山의 中腹에 잇는鑛脈의 露頭를 求景햇다。

우리가 본 西部坑道는 南으로부터 北으로 約六百米突假量 뚤니워 두러갓는데 一見 鐵道의 隧道와 다름이 업다。맨안側에 드러가 보면 鑿音을 通하야 壓搾機로 부터 誘導된 空氣가 기리 約一丈의 무쇠 정(釘)에 作用하야 귀가 破裂될뜻한 宏壯한 爆音을 내면서 岩石을 뚤코 잇는 놀라운 光景을 볼수가 잇다。

이러케 뚤린 노흔 구멍에 다이나마이트를 녀어서 爆破시켜가지고 그破岩碎石을 도로꼬에 실어서 坑口外로 搬出하고서는 다시 空氣壓搾을 利用한 鑿岩機를 드러대여서 구멍을 뚤르는式으로 同一한 工作을 反覆해 나가는것이다。

사람이 정과 마치를 가지고 다이나마이트의 구멍을 뚤르든 時代와 空氣壓搾의 힘을 利用한 이 工作과를 比較하면 實로 隔世의 差를 感하는 同時에 機械發達에 正比例하야 失業이 增加하는 原理를 이곳에서도 볼수가 잇는것이엇다。

이 地面에 露出한 部分을 가르치서 鐵鑛, 金鑛을 勿論하고 鑛床露面이라고한다。우리를 案內하는 事務員은 傾斜가 急하야 鑿登이 甚히 困難한山의 中腹에 우리를 다리고가서 이끼(苔)가 식검하케 낀 岩盤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露頭라고 말한다。

우리는 鐵鑛에 對한 門外漢이라, 혼자 와서 이것을 보앗다면 다만 一片의 바위로 눈넘겨 보고말엇슬것이나, 專門家의 說明을 드르면서 仔細히 드려다보니 따는 鐵鑛가티 보이엇다。

事實인즉 四千餘年을 두고 우리는 露頭를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와섯고, 設使 안다고할지라도 이것을 文明에 利用할줄을 몰라왓던것이다。

何如間 茂山은 現在狀態를 그대로 보아도 깨끗한 小都市다。建物이 最新現代式으로 되어 잇스되 亂雜히 노힌데가 업고 比較的 秩序整然히 노히어 잇다。茂山은 新興都市로서 여지것은 國防施設과 原木採伐의 惠澤으로 發展되여 온것일것이나, 今後의 發展에는 茂山鐵鑛이 相當한 發展促進의 動力이 될것이다。茂山의 將來는 木材, 鐵鑛의 兩大原動力에 달린것이다。

(寫眞은 茂山驛에到着한團員一同=鐵嶺)

訂正 ⊕前回及前前回所載記事中 古茂山驛의 到着及 出發日이 九日로 되엇든것은 八日의 誤

實行能力 有無가問題!
廣田內閣만의創案이아니다
貴族院의國策決定評

【東京電話同盟】 政府의 決定國策에對하여 貴族院方面의意向을綜合하면 左와如하다

政府의 重要國策으로 列擧된 七項目에對하여는 行政機構의 整理改善 其他一、二項目을除하면 歷代內閣이모다 其必要를 强調하여온것으로 반드시 廣田內閣의 獨占的新國策이라고는할 수업다 그러나 國防充實, 國民生活安定, 產業振興, 貿易伸張 其他모다가 現下日本의 國情에鑑하야 必要한것인바 要컨대 다만 政府가 이를 實行할意思有無에 잇는데 如何를 此諸國策實現에 對하여는 充分히 財政과의 調和를 圖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全項目을 모다具體化하기는 困難함으로 假令 其中一、二項目이라도 組閣聲明에 基하야 眞摯實踐하고 相當히 果斷性잇는 案을 세워 반드시 實行하도록 政府當局에 熱望하야 마지안는다

人事・集會

◇伊東淳吉氏(京城覆審法院長)二十五日午前八時半 別府市渡邊病院에서 逝去 二十九日午後四時大和町曹谿寺에서 葬儀執行

本報押收

本報八月二十六日附第五四八五號朝刊은 當局의 忌諱에 觸하야 押收되엿스므로 玆에 謹告합니다

大阪着名問屋案內

家庭用諸金物卸
アルミニューム 銅眞鍮亞鉛琺瑯 日用家庭諸金物
大阪銅器合資會社
大阪市東區南本町四丁目 電話船場(三)二七番 振替口座大阪五四八番

冷소면・冷우동 冷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에
今新兵かぢ(고초가루)
月美人印 製造本舗
黑川與兵衛商店 大阪・天滿

スプリングと鋼線
山添發條株式會社
大阪市南區內安堂寺町二丁目 電話東六六四二一・四 カタログ呈 振替大阪八一九〇〇

橫動發油重 ウエム 取扱簡單一橫型 重油完全燃燒 改良型(二八五圓) 五・六馬力
木炭發動機 燃料費經濟
セコニ經油發動機
セコニ高級精米機
中央貿易合資會社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四丁目 電話土佐堀二三六一

各種作業服 見本月末에發行
コール天長上下服 半ズボン チャンバー 團服、其他裁縫品一式
製造問屋
大阪市東區本町 合資會社 商店 振替大阪八〇五一二番

髮の魅力を增す
マツミ香油 ポマード
本舖 松本正商店 大阪市東區島之內

眼鏡 파이프 쥐암이 煙草入
煙草具專門製造卸
津田嘉助商店
電話 振替大阪二七五三四番

冬物前揃
羅紗 コール天
三つ揃オーバズボン 朝鮮人向オーバ 作業服乘馬ズボン 獵服學生服
現金問屋 二葉屋商店
大阪東區南久寶寺町

南朝鮮沿岸에颱風警報!

中、北部에豪雨 水害의憂慮가잇다!

廿六日朝現在各地降雨量

猛威의颱風北進中

【仁川支局電話】=二十六日午前 仁川觀測所發表=칠백사십사「미리」의 태풍이 동경(東經)백이십오도와 북위(北緯)이십칠도지점에 잇서가지고 방금 맹렬한세력으로 북쪽에 진행하고잇다。지금상태대로 본다면 혹시 남동쪽으로 "코-스"를 바꾸게될지도모르나 이대로 북쪽으로만 계속해서 진행하고잇다면 흑은 남조선방면을 중심으로 큰태풍과함게심한 피해가생길지도모른다。그러나 만약에 요행으로 북동쪽으로 "코-스"를 돌리게되다면 경상남도쪽만 바람으로인한 피해를입고말게될모양이다。그러데 이번태풍은 암만해도 홍수를가저올염려가 크기때문에 이것이몹시 걱정되는것이다。

그리고 각지의 비나린분량은 ▲平壤十五미리 ▲新義州七十五미리 ▲全州二미리 ▲仁川四十五미리 ▲京城八十一미리 ▲元山八十五미리 ▲雄基十一미리 ▲城津二十八미리 ▲江陵二미리 등에 빼치여잇스나 칠백오십사미리의 저긔압이 신의주를 중심으로 떠잇기때문에 평안남북도、황해도、함경남도、강원도등지 곳곳에 소낙비와함께 적지안흔수해가 잇슬는지도모른다 그리고 이번태풍은 어듸보담도 남조선방면을 크게경계하게되고 따라서 호우와 홍수가 극히 념려가된다

全州	一	八〇	三〇	二一一
仁川	四五	一六	五	六六
京城	八一	一八	一	一〇〇
江陵	二	六	四五	五三
元山	八五	七	六	九八
中江鎭	二五	ー	ー	二五
平壤	一五	ー	ー	一五
新義州	七五	ー	ー	七五
雄基	一五	ー	ー	一五
城津	三〇	ー	ー	三〇

이모양으로 비는 각지가 모다 상당한중 중부지방은 백미리 이상이나 온후에 그대로 계속하고잇서 한강의 증수는 다시현저하게되고 그외의 중부이북에도 각지의 하천범람으로 피해는상당하게될모양이다

驪州地方의大雨로 漢江沿岸再次武裝

各處水防團緊張活動

지리하든 장마가 거친지 단몃칠이 못되여 다시 퍼붓는 폭우로 말미아마 일반의 퍼젓든 눈ㅅ살은 또 찌프러지고 말엇다 그리고 경향을 물론하고 곳곳마다 다시 지긋지긋한 수해를 밧고 잇는중이어서 가슴들을 조리게하고잇다。이에따라 한때는 엿새미돌이라는 엄청난 수위에까지 올라갓다가겨우평상으로 도라갓든 한강(漢江)물도 다시 상류지방인 려주(驪州) 가평(加平)등지서 휩쓸려나리는 물을바더가지고 지난이십오일밤부터 차츰차츰 붓기시작하여 이십륙일오후세시현재로는다시넉「미돌」오십오로불어젓다。그런데 려주지방에서 오늘새벽세시로 다섯시까지사이에 큰 비가 나리어서 다시이십이 소동되고잇는중 이에따라 한강도 열두시간을 지난 즉이십륙일오후세시로 다섯시까지사이에는 엄청난증수를보일것으로 예측되여서 안도되엿든 경강(京江)일대의 주민들은 다시 불안에 싸혀잇다。그리고 용산、동대문 두경찰서는물론 그에 각각 소속된 수방단(水防團)원들도 불어노핫든 방수무구를 다시 정비하고 만일을 대긔하는중이다。

京城과元山은 各八十粍

(廿六日까지의各地雨量)

결정적으로 각지의 안심은 못 불안한중에잇다 비는 이십사일과 이십오일에는 중부와남부지방에 만헛든것이 이제이십오일에는 중부가 제일만히내리고다시 비는뒤으로 물러가고잇다 특히중부지방은 흑심하야 이십륙일아침 여섯시 현재 이십사시간동안에 경성 원산등지는 팔십미리에 달하엿다 이제 이십륙일까지의 각지우량을 보면 아레와갓다

	二六日	二五日	二四日	計
釜山	一	七	ー	八
木浦	ー	九	二〇	二九
大邱	一	七	一五	二三

남부중부와 조선의 장마가 을어다시 비는금이십륙일까지 나속변수해에 못하지안흔 막대한 홀동안이나 련일 계속하고잇서 피해를 남기고 지나간뒤를 이 다시 큰장마비가 올것은 거의

氣象特報

二十六日 午前八時半 京城測候所發表 京畿道全域 豪雨가잇고 一晝夜繼續할모양이다 河川增水의 念慮가잇서 警戒를 要한다

天氣豫報

槪況 颱風은 其後北西로進行하드니 오늘아침에는 東支那海南部에잇서 七三三미리를보이고 그進行은 北쪽으로 變行하고 黃海의中部新義州及江原道에는弱한 低氣壓이잇고 高氣壓은 本日海로부터 日本內地北部에 퍼지고 朝鮮中部以北에는 昨日부터 나리는비가 오늘아침도 계속되고잇다 南朝鮮及滿洲는 흐리고 日本內地에는 九州가雨 其他는흐리고 琉球列島는 흐리고北風이강하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밤은흐리고 때때로비가 쏘다진다 明日도갠다 京畿全道도갓다

昨日最高 二四度二 同 最低 二〇度五 今朝最低 二一度八 今日正午 二二度二

白頭山探險映畵及報告講演大會

本社主催 白頭山探險團은 滿天下讀者의 聲援과 期待下에 本來의 壯圖를 遂成하야 豫期以上의 成績을 거두엇슴니다 이제 本社는 그 經過와 收穫을 讀者의 아페 報告할 義務를 늣기고 아울러 本社映畵班에 依하야 撮影한 聖山의 雄姿를 實景 그대로 紹介하기 爲하야 이제 白頭山探險映畵、報告講演會를 開催하는바입니다

時日、第一日、八月二十七日午後七時(招待者限) 第二日、同三十日(一般讀者) 第三日、同三十一日(同) 第四日、九月一日(同) 第五日、同二日(同) 第六日、同三日(同) 第七日、同四日(同)

(第一日은 特別招待者入場에限하고 第二日부터는 讀者招待券을別로합니다)

場所 本社大講堂

演士 金秉河、張亨斗、司空桓、姜在鎬、申聖雨、徐椿、李相昊

朝鮮日報社

咸南山間地帶의 豐山郡엔벌서霜害

昨年보담도二週日이나일러 農作物被害가莫大

【咸興】함남도 산지대일부에는 벌서서리가 네려서 농작물의피해가막대하다는 비보ー이십오일 함남경찰부에도달한 풍산경찰서로부터의 보고를보면 풍산군웅이면도상리(豐山郡熊耳面都上里)금룡문리(龍門里)일대에는 지난 이십륙일 오전세시쯤되야 초상(初霜)이 네렷다。이것을 작년의초상(初霜)일인팔월이십팔일과 비교하면 약이주일이나 더일르며 작년도의조상(早霜)피해보담도 일층더그정도가심하다고한다。아직경찰부에 들어온보고는 풍산(豐山)군뿐이지만은 강상(降霜)은삼수(三水)갑산(甲山)장진(長津)일대에도 내렷슬것이라고하며 목하산지대의 온도는최저령도홍은 빙점이하까지 네려간다고한다。례년의랭해(冷害)도 모다 성숙긔에 이르러서부터바든것으로 금년도역시이와가티조상(早霜)과 관수병(冠銹病)의 흑심한피해를바더 작년과가튼막심한흉작을예상케하야 주민들은 전률할상태에잇다

水王産婦人科

開城蔘販賣統制 大會社創立準備

問題는中小業者와季節勞働者 萬餘名의淘汰流離

【開城】「고려인삼」하면 일반에게 영약(靈藥)으로 신용되여 이를기회로 재래개성 백삼동신판매업자들은 부정상품을 가지고 별별수단으로 기만하야 위조판매하는상인이 만헛섯다 이러케 강요비도(强要非道)를 일삼어왓기때문에 그후「고려인삼」의 경가는 여지업시 상실되고 부진(不振)의 지상태에빠진 개성삼업계를 구출하고자 소화팔년에 비로소 동업조합(同業組合)을 세워가지고 엄정한 검사제(檢査制)와 등급별로 일정한공정가격(公正價格)을 시행케하야 생산통제를 해왓든것이다 이바람에 위조판매하든 근삼백여명의 간상배들이 도태당하게되자 개성의고려인삼은 신용을 중회복해왓섯다 그러나 오늘에와선 개성의 삼업계는 생산과다(生産過多)로 말할수업는 부진가운데 금년만해도 칠천여근의 재고품이남어 일반판매업자는 십여만원의 결손을보게되여 그들은 동조합의 정관(定款)을 위반하고라도 암중밀매의 판매경쟁은 의연히 심햇든것이다 여기에서 시세가찻고만 떠러지는 개성삼업계는 이때 또 다시 금년 신삼기(新蔘期)를 맛게됨에 수삼(水蔘) 갈의 여지업는 폭락을 예측한 삼백여명 경작포주(耕作圃主)들은 그대책으로 어떠튼판매통제기관을 요구햇든것이다 그리하야 이문제가 돌연히 지난번 삼업조합(蔘業組合)의원회에서 구제책으로 준비공작을 세우게되자 지난이십오일 삼업조합회석상에서 조합장 공성학(孔聖學)씨의 발설로 상정되의한바 만장일치로가결되여 회사창립위원으로 박봉진(朴鳳鎭) 손홍준(孫洪駿)씨외 삼십여명이 선출을 보게되엿다 그리고 자본금 이백만 주식회사로서 일회불입 오십원을 위선 투자하야 금년채굴(採掘)하는 구천여석의 신삼은 전부한 회사의손에 독점구입하게되엿다

이러한대재벌이 단일기관이된 오늘엔 개성의 대소백삼제조업자와 통신판매업자삼백명은 이기관에 자연도태를당하게되엿스며 또한일백오십명 소개업자와 및 삼자거간(私字居間)들은 당장실업대중수를 보게되여 그들은 총회석상에「신중히 고려해달란」―탄원서를 지정햇스나 아직것하등의 효과를보게못되엿다하니 오늘부터 그들도 실직의고배(苦盃)를마시고 가두로방황하게되엿다 또는 백삼제조기만되면 가을한철 계절로동(季節勞働)이라도해서 겨울을살게다든 만여명의 남녀공들도 회사통제바람에 가슴을조리고잇스니 개성세민층의 인심은 자못불안가운데잇다 이것은 개성경제계의 미증유의대파문으로 중소상업가들의 몰락과정의 비운에 직면햇다 아니볼수업다

질링 신긔하게근치되는 임질내복약 ネオゴノルヂン 價格 三円 六円 大同製藥社

宿直室에侵入 洋服주머니털이

시내창신정(昌信町)一백팔십칠번지에사는 리규복(李揆福)(三○)은 이십삼일오후열시쯤에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 일화생명조선지부(日華生命朝鮮支部)숙직실에 드러가 숙직원림수영(林壽永)의 양복주머니에서 현금삼십원을홈처다가 이십오일 서대문서에체포되엿다

水害義捐金

(八月二十四日正午現在)

五十錢 朝鮮總督府林野調査委員會內 金蘭秀

六圓五錢 京城日報社取扱

七圓八十錢 京城府明倫町三丁目五三 經學院

日計 十四圓三十五錢

累計 千五百六十八圓二十一錢

特務隊事件七名 二十五日에送局

軍官校生中心新團體를組織 三名拘束、四名不拘束

【平壤支局電話】작년십일월평남경찰부(平南警察部)에 검거당하야 이래취조계속중이든 특무대사건(特務隊事件)은 그간취조의일단락을 지어이십오일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관계자일곱명은 평양지방법원검사국(平壤地方法院檢事局)에 송국되엿다 그중세사람은 불구속으로 서류만 송국하엿다는데 관계자씨명은 다음과갓다

拘束送局者 平南价川郡中南面光德里出身 羅士行(三三) 金山領(三二) 鄭成彦(三○)

不拘束送局者 鄭斌 李逐雨 金尙熙 李成春

이에대하야 이십륙일아침 평남경찰부고등과(平南警察部高等課)에서 다음과가티 사건내용의발표가잇섯다

상해(上海)남경(南京)지방에서 ○○운동(○○運動)에 활동하고잇는 김구일파(金九一派)는 ○○국민단(○○國民團) ○○혁명단(○○革命團)을 조직하야 작년십일월 그단원중 안모(安某)、송모(宋某)를 남경에트파하야 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와 중앙대학(中央大學)에 재학중인 조선인학생을 규합하야 남경성내○○구락부(○○俱樂部)에서 특무대결성식을 거행하야 특무대라는 새로운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활동을 개시하는한편 특무대비밀연락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무사를 양성하야 세력을 확장하려고하엿다 그후사정에의하야 특무대는 해산되엿다한다 ○○당의거두김구(金九)는 이에새로운 계획을세우고 전에특무대에관계하고 잇든청년들을 규합하야 조선、만주(朝鮮、滿洲)각지에 밀파하야 모종운동을 획책하엿다 그리하든중 전긔관계자 라사행(羅士行)은 이에압서 장변시에서 모종중대사명을띠고조선에 잠입하야 활동하다가 개천경찰서(价川署)에 체포되고 계속하야 련루자로 검거된자가 상당하야 취조한결과 의견서(意見書)를 첨부하야 검사국에송국하엿다한다

優勢한土兵團 警務隊를逆襲

住民十五名을拉去 二十五日平北義州對岸서

이십오일 오전세시쯤에 평북의주서내곡주재소(平北義州署內谷駐在所)대안 관전현 고로자촌서강구(寬甸縣古老子村西江口)뒷산에 계통이불명치안흔 여명이 잠복하여잇는것을 알고 동지에서 엽브공작중이든 장전하구(長甸河口)경무원 십륙명은 자위단서명과 합력하야 이를공격하엿든데 토비측은완강히 저항하며 역습하여 왓슴으로 경무원측의 한명이탐치를당하엿스며 그만 퇴각하고 말엇다 그리고토병단은 상대에 난호아저서 남정구부락으로 습격하고 주민십오명을 납치하는 일방 무긔금품을 강탈하고대안평하포(大安平河浦)방면에 도주하엿다

留置人二名 脫走

大田警察署에서

【大田】지난이십사일오후팔시경 대전경찰서(大田警察署)류치장에서 류치중인 절도범 두명이 순사의 조으는틈을타서 류치장을 탈주하얏다 동서에서는 즉시 비상경계선을 느리고 시내각점 려관등을 중심으로범인수사에 맹활동중이다 전긔범인은 부내영정(榮町)이정목에사는 전과삼범의 리용준(李龍俊)(二○)과 춘일정(春日町)사정목사는 전과이범의 장우석(張佑錫)(二○)이라고한다 범인은 아즉 오리무중에 잠겨잇고 경찰은 안비막개의 활동을 계속하고잇다한다

不注意로轢傷

前齒가불어저

이십오일 오후다섯시사십오분경 남대문통(南大門通)삼정목이십번지압 전차길에서 혜화정(惠化町)일백사십번지 김수남(金壽男)(三)이가 운전하고가는 원정행(元町行)일백오십칠호차에 삼판통(三坂通)일백사번지 정낙진(鄭洛鎭)(三)이가 치여서 이한개를 불어트리고 다리에상처를 바덧다 원인은 피해자가 부주의한탓이라한다

京城、楊平間 自動車線路復舊

지난번 폭우로말미암아 길이 끈어져서 자동차가 통하지못하든 양평(楊平)도로는 그동안수선에 노력한결과 복구되여 이십오일부터 평소대로 회통자동차가 통행하고잇다한다

世界唯一●完璧을誇함

農業用小型얌마ー디ー젤

發賣開始

◉本機의五大特長

一、運轉經費는電力의三分之一、石油發動機의十分之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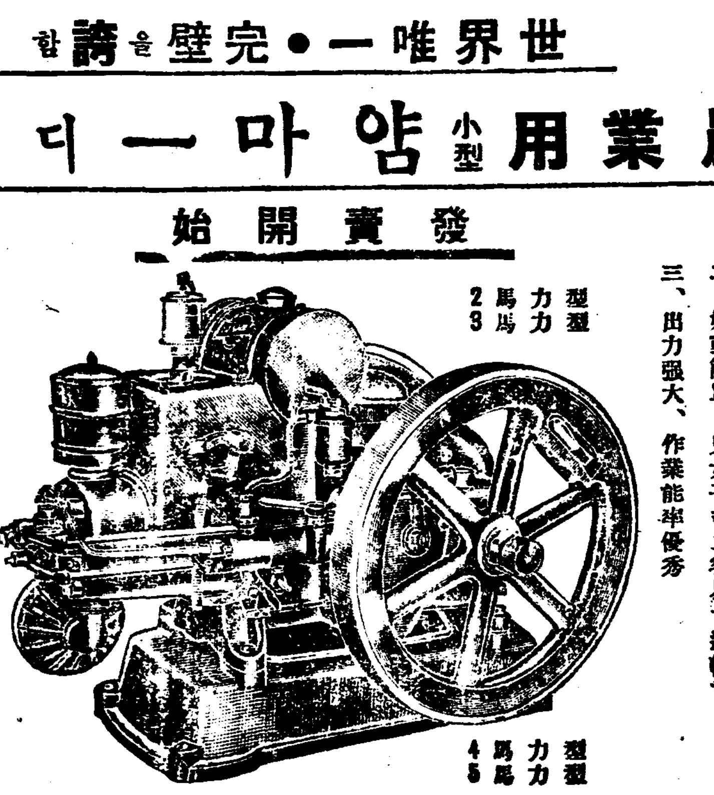
二、始動簡單、兒女子라도容易히運轉함

三、出力强大、作業能率優秀

四、모-다-와如히一定한室을不要하고移動容易함

五、回轉에差가없이모-든用途에歡迎

型式 2馬力 3馬力 4馬力 5馬力



◉特約店募集 詳細型錄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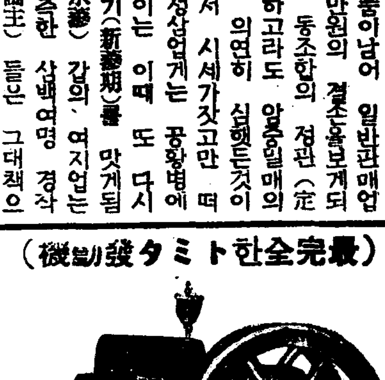
元賣總發 山岡發動機京城支店 株式會社 山岡內燃機株式會社京城出張所 京城驛前

トミタ發動機・板野式脫穀機 ロリ發動機・マルヤポンプ マタス發動機・中央式精米機 ホーオー籾摺機稻扱機製繩機 ホーオー製粉機其他各種機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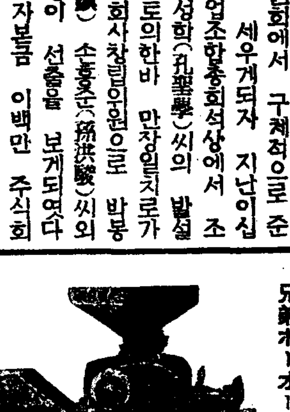
特約店募集・型錄進呈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 中央商工社 電話本局 四七三五 一三五六番

(最完全한トミタ發動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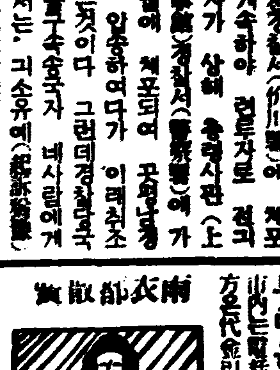


農林省比較審査最高優位入選機 兄弟ホーオー籾摺機



トミタ發動機 (クボタ發動機同型) 高壓回轉マクネット付他機와比較하기爲하야當分間大阪工場元價로提供함

南衣部販賣



朝鮮防水布製造所 京城光熙町外新堂町 電話本局 二〇二二番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의우장옷은다-준비되엿슴니가雨季는일로부터올시다

腹痛タミシン

차게자서 생긴腹痛 食傷 胃痙攣 의苦痛을곳낫게하는妙藥

大阪 天眞堂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日◇學則要二錢切手

第四七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三番地 (電本五三三〇番)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九月十日 晝夜 (學則要二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又ハ編入學受驗準備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三番地 電本五三三〇番

이은자리업는軍手의 製造家募集

希望하시는분은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十四番地 常盤商會支店에照會 또는乞來談

東京市神田區五軒町九ノ二 常盤商會本店 電話下谷三三七一番

軍手

商科、工科、普通文官科 生徒補缺募集

學則要郵券二錢 京城黑石町(漢江畔明水台) 京城商工學院

幹部社員招聘 地方主任 監督所長

若干名採用生命保險外交趣味有者、交際廣面手腕家經驗不問履歷書、身元證明各壹通郵送詮衡後面會日通知、俸給其他月收百五十圓以上確實(但面會時刻) 京城府花園町四五

Columbia 壓倒的人氣의流行歌 갈빗어린사막 아비렐레코드

胃腸榮養 錠劑 わかもと

와가모도

代用藥업다!

「錠劑わかもと」는數千種을算하는헤ー케菌中가장醫藥的價値가豊富하고優秀한特殊菌種을特許方法에依하야製造化한것으로서그主菌은日本藥局方「藥用酵母」試驗에合格된것만아니라白米食에缺乏한비타민B1B2의含有量은모ー든生物을通하야唯一한有名品이다。數十種의類似品이잇스니「錠劑わかもと」라는이름에注意하라。

衰弱体의 自力更生

홀로榮養이增進하고 衰弱을恢復하는細胞賦活作用

自力更生! 그것은今日朝野로到處에서웨치고잇는말입니다、疲弊에서 繁榮으로의바른길은다른곳에서物質을給與하야 救濟하는것이아니라自力으로 更生할수잇는組織을 만듬에잇다는 主張으로 經濟的事實만을 主唱하엿섯지만 至今은 人間榮養上問題로서 同一한말을 웨치지안허서는 아니될時期에到達하엿습니다、

日常普通食物로서榮養分을吸收하는힘

至今까지의榮養劑는 他力本位이엿습니다、여러가지榮養素를消化吸收하기조케하야 衰弱者에게給與하는것을 目的으로하야 따라서 榮養劑의價値는 乞含되여잇는 榮養素의 價値와分量에依하야 決定되는데말하자면『本劑의榮養素는 肝油의멧十倍 鷄卵의멧百倍에該當한다』는것이重要視되여잇섯습니다

勿論 그러한榮榮劑도잇서서조치만 自力本位로사람이타고난榮養能力普通日常의飲食物에서라도必要한榮養分을消化吸收할能力을 旺盛히하야 自力的으로榮養을更生하게하는 榮養劑가 當然히 出現하지안흐면 아니될時代가되엿습니다、

헤ー케菌에서 發見된『錠劑わかもと』는 우리나라治療界 에未曾有한 大衆支持를밧고잇지만 이것이實로 自力更生을目的으로하는 榮養劑입니다

在來의榮養劑에比하여도優越하다

이것을 在來의榮養素補給의 榮養劑로서 觀察하면 脚氣治療以外에 今日에는 胃腸에도 成長促進에도 여러가지効果를 認定하고잇습니다 비타민B의 가장強力한것을비롯하야 蛋白質、누구레인、脂肪、구리고ー겐及、치진、리진、도립도판等의아미노酸燐갈시움、鐵等의無機成分지아스타ー재인 벨타ー제 리파ー제其他의酵素等各般의成分을 榮養素의種類와 價値에잇서서充分히優越한것입니다。그러나『錠劑わかもと』로서는 이것들이 그리重要한意義를 가진것이아닙니다。

細胞에活力을給與하야榮養能力을昴進한다

本劑의最大價値는 人體를組織하는細胞에活力을給與하야 一種의更少現象을 이르키어 自然히胃腸其他의機能을 活潑하게하야 홀로 榮養을增進식히고 衰弱을恢復식힘에잇다 이것이업서서는 到底히本劑가 보이고잇는것과가티 胃腸病 結核病 腦神經 新陳代謝等의障碍 領域에미치는効果는 說明할수업는것입니다

學者는 이가른作用을 이불부처細胞原形質賦活作用(Protoplasma-Aktivierung)이라고부르고잇스며 이에依하야 人體의榮養能力ー消化하고 吸收하고同化하고 蓄積하는全般의機能이昴進되여 抵抗力이增進도되고 殺菌滅菌抗毒原의增加되여따라서「錠劑わかもと」의 効果는여러가지方正에미칩니다

ー例를들면

胃腸이弱한분에

服用하면 衰弱한胃腸이强해저서 自力的으로 消化吸收의我腸을 活潑하게하야 便通을整齊합니다

結核과肋膜炎에

服用하면 食慾도增進하고 體重도增加하야疲勞感이업서지고 抵抗力이昴進합니다、따라서 結核의勢力이 解熱劑를服用치안허도 漸漸每日熱이내립니다 또便通이不整하야

發育이나뿐亂兒

와身體가弱한애에게 給與하면 全身의榮養을 조케하는目的에도 適合하지만 全身을 組織한細胞의活動이힘을 어드므로 그點에잇서서 發育이 大端히조화지고 身體가健康하게됨니다

「錠劑わかもと」는 이와가튼 優秀한 作用이잇스므로 家庭에서 만히使用되는것은 勿論이지만 病醫院醫師産婆、學校醫 工場醫여러분도모도 病衰弱者에게 熱心히 推奬하는분이만케되엿습니다

小學校에 掛圖寄贈

敎育資料會

稱讚의優秀한 敎育掛圖를全國小學校에寄贈합니다

「錠劑わかもと」를 購入하시는여러분은一瓶마다、添付한「掛圖寄贈引換券」을小學校에寄贈하시요 小學校에서는그券을모아가지고 東京市芝公園十一號地의敎育資料會로 送付하시면規定枚數에應하야 敎育掛圖를 寄贈합니다 詳細한것은小學校에서照會하는대로通知하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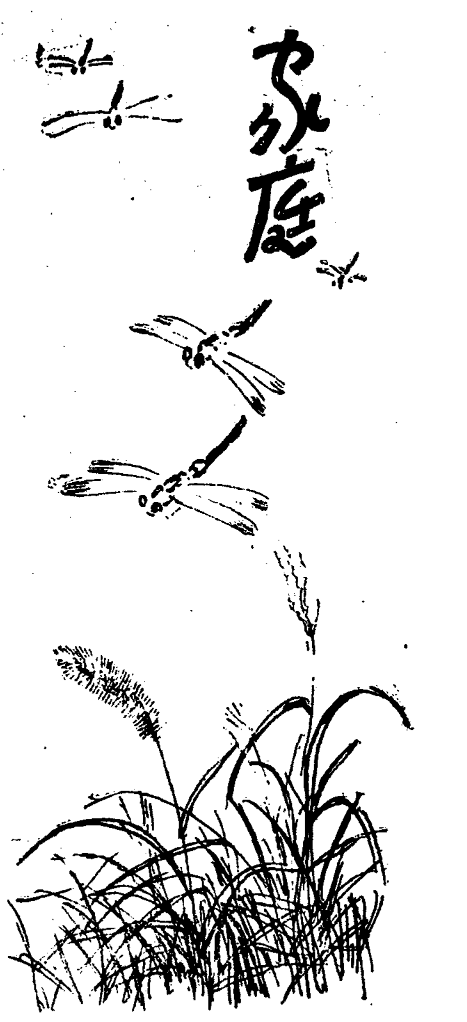
藥價低廉、壹圓六十錢(三百入錠)

三百錠은大人에는廿五日分・十歲前後兒童에는四十日分・五歲前後에는五十日分・三歲前後에는六十日分에該當함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東京市芝公園大門際・振替東京一七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금붕어도 늙는때……



빨래는 살머 빨것

그보담 더조흔 방법이 업다

단지 양재스물만은 비각이니 그대신 비누스물을 쓰자

그저 때며 노코 남이 하는 것은 조라고 생각하고 우리네가 하든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되지안습니다。우리네의 습관이 남의 습관보다 몇십배 몇백배 나흔수도 젼연 업다고 단정하야 말하지못합니다。위선 빨래를 빠는 법으로만 보라고 하더라도 우리네가 해오든 방법이 대단히 발달한것이라고들 합니다。물론 거긔에도 약간의 결함이 업는바는 아니로되 대체에 잇서서는 어듸보담도 발달되얏다는 의미입니다。조그만데라도 이런점이 어떠코 저런점이 어떠라는 것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그래서 조흔 점은 조흔대로 계속하야 나쁜 점만을 뜨더 고치어야만 우리네의 가정생활이 비로소 합리하게될것입니다。

첫재로 빨래판이란 그전에는 중국이나 일본내지에만 잇든 것이요 조선에는 업든것인데 요사이로 수입이 되야 집집마다 그것이 업시는 거의 빨래를 하지못하다시피 합니다。물론 조그만 빨래가튼 것은 빨래판으로 하는것이수월하지오만은 빨래판으로 때가 쪽 빠지는 것도 아니것고 자칫하다가는 옷만 모도 버리게 됩니다。본래꺽골꺽곱한

빨래판에다가

빨래를 놓러서 비누스물이 고루 배어 가지고 때가빠지라는 것이지 거긔다가빨래를 북북 문지르라는 것이 아니올시다。고운 비단옷가튼 것을 그러케 북북문질러 노코 보니 치고 상하고 째지고 부서지고하야 구경 그 옷은 더다시 입지 못하게되는 것입니다。

×

둘째로 조선서는 함지박이나 동을 여페노코

쪼구리안저서

돌가튼데서 빨든것인데 지금들은 신식을 찻는다고 무릅을놉코 빨래그릇을 안다시피하고 축접 빨래그릇에다가 빱니다。물론 엇는 생각하야 그것이 퍽 편할것도 갓지오만은 장시간 그러케 하고서 빨일수가 업는것입니다。나종에는 발다리에 쥐가 나고 아랫두리가 차지고 가슴이 압박되야 가슴도답답합니다。그 결과 각긔가 생기고 치질이 생기다 위장부인병이 생기고 조치못 하게 됩니다。더구나 안악네들은 위험하니 그로 인하야 낙태도 되기쉽고 또 조산(早産)도 되기쉬운 가닭입니다。쪼구리고 안저 돌에다 빠는것은 밟듯이 리상적은 아니로되 무릅을놉코 빨래통에서 빠는것보담은 낫습니다。

×

제일조키는 빨래ㅅ대를 맨들어노코 서서 빠는것입니다 그래야만 몸도덜 고담프고 일도 쉬웁니다。그뿐아니라 방망이질은 절대로 조흘니다。돌에다가 방망이질을 한다는것은 빨래를질대해도

분수가업는짓

입니다。그러나 빨래를 살머빤다는것은 확실히 발달된방법입니다。살머 빠는이상때가 더잘빠지는 방법은 거의 업습니다。서양서도대개빨래를살머 빱니다 일본내지서도 요사이와서는 살머빠는이들이 차차만허지읍니다。단지 양재스물에 살머빠는것이 좋이니다。만일 비누스물에다가만 살머빠는 것이라면 가정안에서 빠는 것으로는 그 이상 조흔방법이 업습니다。

녀름을타든분들 가을에는 빈혈이 위협

예방에 빨리서두시요

녀름을 타는 사람들은 한녀름을 지나고 나서 가을에 이르러 빈혈증(貧血症)을 이리키는 수가 만습니다。빈혈증이란 혈액가온데 혈색소(血色素)가 결핍되거나 적혈구(赤血球)가 결핍되는데 짜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출혈이 되야도 빈혈이 되는데 거긔는 급성과 만성이잇습니다。급성은 출혈후 곳 일어 나는 것인데 어른은 전신의 피를 반이나 일코도 생명에 관계가 업지만은 아이들은 조그만 일허도 곳위험하게 됩니다。그러케 한번 일허진피를 급작스러이 보충할수는 업는터라 빈혈이되는답니다。그런데 피가 다시채워지는데도 여러가지의 조건이 잇습니다。위선 혈액의성분을 짜아서도 다르니 수분(水分)이 제일 빠르고 적혈구가 제일 더되며 또 그사람의 나희와 평소의 건강에도 짜아서 다르니 아조 건강한청년은 출혈후 이삼주일박게 안걸립니다。만성은 두고 두고 출혈이 되는까닭에 생기는 것입니다。그 원인은 대개 월경이상(月經異常) 위궤양(胃潰瘍) 귀생충(寄生虫)등의 병이 만습니다。또그외에도 혈액의 파괴를 이리키는 병도잇습니다。위선말랄씨라는병이라는 것도 그중의하나입니다。또는 예를 나코삽스저리에서도 일종의 독소(毒素)관계로 빈혈을 이르키는이수가 잇고 매독이나 학질로도 빈혈을 이리키는 수가잇습니다。또는 결핵 암 만성태혈증등으로 빈혈을 이리키고 위황병(萎黃病)이라는 병으로도 젊은 안악네의 특별한 빈혈을 이리키는 수가 잇습니다。

그러니까 빈혈을 고치는데는 몬저 그원인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딴 병으로해서 일여난것이라고 하면 그병부터고치지 안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대체로 치료하는 방법은 음식을잘먹이어 영양을조케 하는것입니다。원래영양보담은 채소가 조커니와 빈혈증환자는식욕이잘댕기지를안하야육종이 구미에 밧지안할것이니계란 우유등도 조습니다 간유(肝油)도 조치만 비위가 약하야저서 먹지를 못 합니다。무리로 먹이기는 조어떨까 합니다。빠러, 토마토는뷔타민의 결핍을 보충합니다。레몬, 포도, 딸기가튼 실과도 조습니다。

김성의 간이 썩 조습니다。더구나 회가튼 것으로 해서 생으로 먹는것은 더조습니다 혈액을맨드는데는 철분(鐵分)이 필요합니다。시금치 양배추 달갈노린자등에 철분이만합니다。

그러고 피부를 일광에 쪼이는것도 한방법입니다。셜사죽젓은 아니라도 간접으로 효과가 적지안습니다。

하이킹프레젠트 들에서 꺽근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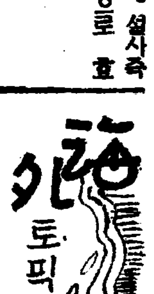
시들지안케살리는법 비결은꺽글때잇다

산에나 들에『하이킹』을 나갓다가 찬란하게핀 꼿들을 보면 자연히 몃가지 꺽거가지고 집으로 오고시픈것이 상정입니다 그래서 꼿을꺽는생각에 빨리 집으로돌아와서 부산하게 물녀은병에다 꼬자놋습니다 그러나 가엽게도 그꼿에물이 오르지를못하고 애석하게도 그냥구가 시들어서 구술프게도 그꼴이말이못됩니다。

―이런일이업도록 어떠케 해야 꺽근꼿을 잘살릴수잇슬까 언제까지든지 웃는그 꼬츨보고 봉오리가 또 피어 또웃는 그꼬츨 보자면 이런비결을 아라두서야지요

◇

그것은 꼬츨보고 한가지꺽겟다하는 생각이들거든 먼저 흙을뭉끼잇게 뭉처노앗다가 꼿가지를 꺽글때는칼로싹벱니다 그리고는 칼로벤자리를 얼른흙으로 틀씨워그흙이 허무러지지안케조히로 덥허가지고 집으로도라가십시요 엇재서 이러느냐하면 꼿가지의 꺽근자리를공기속에이지안케하라는것입니다。이만한 수고만하면 집에 와서 그꼿나무가지를 통채로 그대로 물ㅅ병에 텀벙 꼬자버리면 시들지도 안코 들에잇슬적모양으로 잘 자랍니다。



부끄럼약

사람이 너무 숙슬해서 남의 아페서 할말도 자세히못하고 얼골을 붉히며부끄럼을 만히타는사람은 자긔로서도 민망할때가 만흔것입니다 그리하야 이러한 증세를 곳치고 좀긔운잇고 쾌활하게 사람을 대하여 보것다고 아모리 힘을드려도곳칠수업는 사람이 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끄럼타는사람이 먹으면부끄럼을 타지안코 어색해하며 얼골붉히는버릇이 업서지고 쾌활해지며 매사에 참을성잇고 자신이생겨저서 정신이 깨끗하야 아모리 어려운일이라도 해결을잘하는 신기한약이영국『런던』에서 발매되고 잇답니다 약명은『벤제드라인』이라하며『우울과 부끄럼을 날녀보내는약』이니 여러분한번 시험으로먹어보는것이 엇더습니까 하고『런던』의어느잡지는 굉장히 떠드러두엇답니다

麥酒常識

남은더위에 아직도제철

맥주먹으면살이찐다 그러나 무서운 맥주심장병

맥주는 암만그래야 여름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맥주를 맛으로 먹는분이 잇지만……。

처서가 엇그제지나 조석으로생량한 기운이 돌지만 아직 남은더위가 잇는지라 맥주는물론 다른청량음료들도 여전히 팔리는모양입니다。

맥주를 술이라하지만『알콜』이 석김분량이 백분지삼 내지백분지오분이요 그외는 모두가물이라사이다』『소·다수』와 성격이 조곰다를뿐이요 가룹유라고 볼수도잇습니다。맥주는이와가티 알콜분이 적기는하나얼른알콜취하게하는 특증이잇서술못하는 부인네들이먹으면 다른술보다 더낫치 붉어지고 실수하는수도 더러잇습니다 그러나 다른술과달라 아모리 말로먹고섬으로 먹는대도 소주나배갈처럼 몰라눕는일은업습니다

◇

맥주의 본고장이 독일이라는것은 누구나아는바인데 독일에서는 부인네들은 말할것도업고 어린게집애까지 레사로 맥주를 먹습니다。그러나호리호리한 몸맵시를원하고 먹부리는 부인네는 먹기는먹으나 그리만먹지는 안는다합니다。

맥주를 늘게속해먹으면 살이 찝니다 살이쩌도 이만저만찌는 것이아닙니다 그래서 부인네에게는 아마자미업것지요 맥주에는『에네르기』가만히잇서서 빈들빈들놀면서 맥주만먹는 회사의 유한중역들은 그러기에 살이잘 찌는모양입니다。

독일에서는 유한중역만이 아니라 맥주회사 직공들까지 그러케 살이찐다는데 이살찌는것이 병적(病的)으로 되어버리면 여간 무서운것이 아닙니다 즉『비ー어헤르쓰』란병인데 맥주심장(麥酒心臟)이란뜻이니 맥주먹어생긴 맥주심장ㅅ병입니다。이병의증상은 몸을조곰만 세게 놀려도 맥박이뛰고 숨이갑부고 땀이 쏘다지고、다른병에걸리면 저항력이 퍽약해져서 곳심장마비가 되어버리는 고약스러운것입니다。

맥주는 차게해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그러라고 끕부속에 어름을 깨트려 너어먹으면 맛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바이지만 맥주를 부을때는 쾔쾔 붓지말고 곱부를 좀기우려서 바드면서、거품이 만하일지안케 살곰살곰 부어야합니다 거품이 너무일면 맛이적고、또 거품이란 맥주의귀중한생명인탄맥질이니까 끕보에넘쳐흘려 버리게 된다는것은 좀의갈습니다

검은 맥주와 보통맥주는 원료로 쓰는맥아(麥芽)를 볶는데관계되는것인데 검은맥주는 맥아를 몹시볶가서 맨들기때문에비치 검습니다 그리고 이검은맥주는『알콜』이 좀더강할뿐입니다。

끄트로 맥주에는『삐타민·삐』가 만습니다 뿐만아니라 맥주를맨들고남은 재강에서『비타미삐』를 뽑아 각기약으로 맨드러팝니다

少年小說 그림책 ③

李龜祚 作

부모도 업서지고 학교도못대기고 수걱수걱 일만 하다가 집에를 돌아오면 심심해 죽을지경이엇습니다。이럴때에 나에게 심윤을 대해주신 이가김선생님이엇습니다。

나는 김선생을『언니』라고불렀습니다。저녁을 먹고 나서는 가티『짜푸』도하고『열보치기』도 똘똘히 했습니다。어느때(주일)는『재망재』꺼져 원족(遠足)을 가서 은조히 곱조하에 싼 달콤한 사탕도 어떠먹은 적이 잇섯읍니다。

『그림책과 김선생!』

『김선생과 그림책!』

그리다가 학교를 마치고 어떤 시굴로 내려가신것이엇읍니다。길을 떠나시던 전날밤『나본듯이 보라』고 주신 물건이 그 그림책이엇습니다。

『김선생님!』

『김선생입……』

『궁상스럽게두 재가 웬 잘고대야』

부드러운 품이 어머니의 목소리이엇습니다。

『빨리 일허나거라。밝은제가언제라구……오늘은 풀을 조까어야 될텐데――』

거세고 혀를 채는 품이 아버지이엇습니다。(그림책을 일허버린것이 서운해서 너무나 마음『옹』하니 먹엇던 닷인가잡고대를 한것이엇습니다。)

장독대 향아리에、아침햇비치와 비치고 잇섯습니다 아버지는 뜰안에서 서성대시구――

어제밤 이불을 막 쓰고 그림책 생각을하다가 살몃이 잠이들어버린것이엇습니다。그러한 까닭에 해가 활신 뜨도록 늣잠을 잔것입니다。

『아침을 먹기 전에 낫이나 갈아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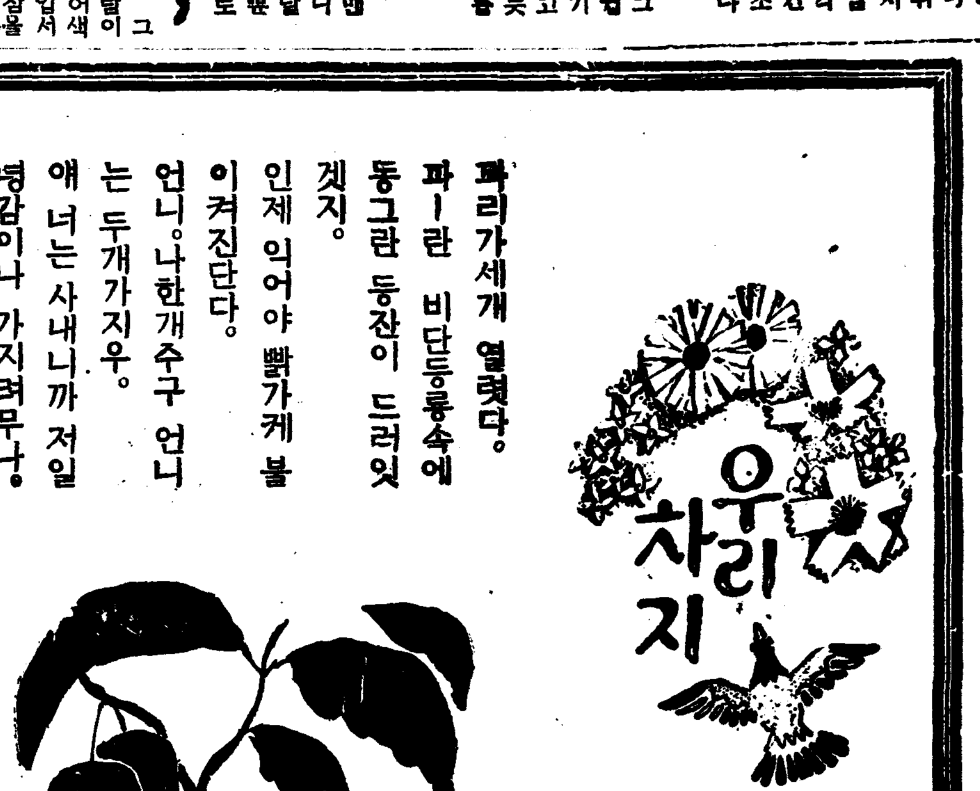
생각하고 구렁에서 낫을 꺼내들엇습니다。그리고 숫돌에다 낫을 삭삭 가노라니、다시 그림책생각이 그하냥 뭉게뭉게 떠올라 오는것이엿습니다。

병경이 말을 타구서 나팔을 불고……물에 빠진 기집애를 건저내고……원숭이가 나무우에서 재주를 넘는 그러한 그림들이 환하게 달밧처럼 나타나고 잇섯습니다。

『얘ㅣ 빨리 올라와 밥 먹어라』

깜작 놀래서 돌아다 보니 마루우에서 김이 피여나는 국그릇 밥그릇이 노히여잇섯습니다

(끗)



파리가세개 열렷다。
파ー란 비단등롱속에
동그란 등잔이 드러잇겟지。
인제 익어야 빩가케 불이켜진단다。
언니。나한개주구 언니는 두개가지우。
애 너는 사내니까 저일 병감이나 가지려무나。

(글쓴사람 구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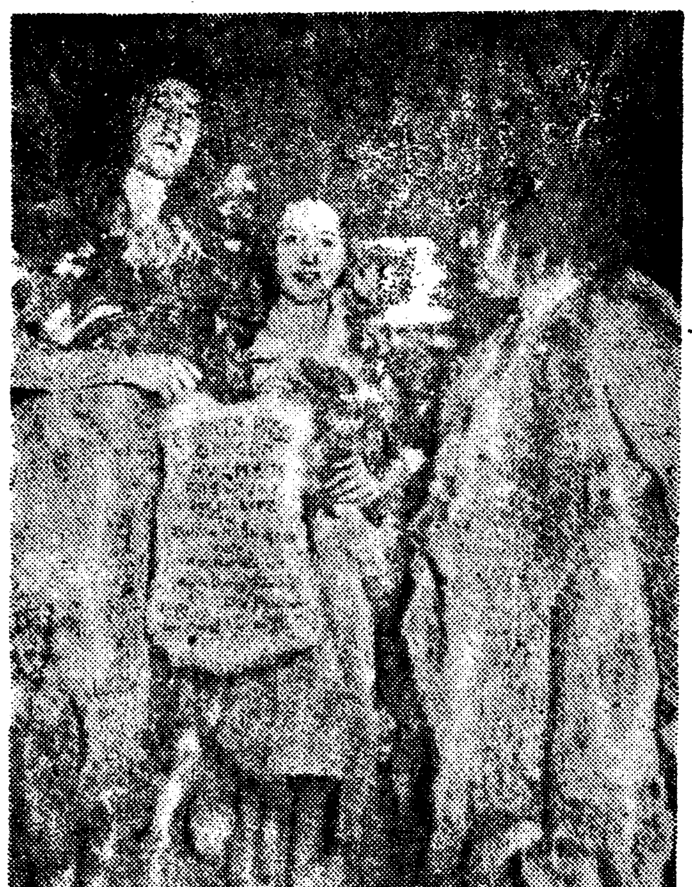
지능에관게되는 애기의벼개

―노피베여주면못쓴다―

옛날부터 벼개를 놉다라케 비는 사람은 오래 사지를 못한다는 말이잇습니다 그 말이정말인지는 자세히 알수업스나 어린아이에게 벼개를 비여주는것은 확실히 조치못한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벼개를 노피비이면 아이의등이 구버지기쉽습니다 그럼으로 벼개는비이지말고、어린아이를 누필때는 다만발에서부터 머리로 휼너가면서 비슷한 경사가되도록 자리를 가려누피는것이 조습니다 그리하야 벼개를 비이지안흔것이 어색하거던 얇다란 헌겁조각을 머리스미테 깔려주는 것이 조습니다 그리고 놉는자리에 깔려주는 요가튼 것은 될수잇는대로 보드러운것을 까라주도록 하는것이 조습니다、그리고 벼개를 잘못 비인다던지 누필적에 주의하지 안흐면 어린아이의 머리뒤통수가 넙적해지며、삐뚜러지는등 기형적으로 되여 버립니다。뒤통수가 삐뚜러진 사람은 보기에 숭할뿐더러 재조가 업서집니다。

문명을 끄리는사람들



물질문명이 작고만발달하여서 한고피를넘게되면 사람들은도리혀 문명한현대생활을 실혀하고 넷날도아주넷날 원시시대의생활을 그리워하는가비요 그러기에 미국가리 문명한나라에서도『오레곤』주『그란스·파스』에 갓가운원명한『오레곤』동굴은 넷날부터 굴혈에서생활하는 사람이 만흔만큼 사진과가리 지하 일천육백『피ー트』되는 동굴속에서발가버슨 몸에 즘생껍질을 입은 신랑신부가 추장이하 모든사람 아페서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신랑은『하ー만·자렛트』、신부는『이ー린·스크로긴스』양이 추장의비ー츤씨(바른편)으로부터 즘생껍질에쓴 결혼허가증을 밧는것입니다。

죄수업는감옥

『스와케』라는『아라스카』의도회지는 옛날 황금파시대의 도적의소굴로서 유명하든곳이요 지음일변동안은 사건다운 사건이하나도 업서서 감옥이텅비고 말엇습니다 당지감옥주임은『감옥은 텅비고 고양이 두마리박게는업다 그고양이도 언느때는업서저버릴때가잇다』하면서 탄식을하고 잇답니다

☆曆☆

八月廿七日(木)
舊丙申七月大(十一日)
辛巳·金·斗·收
●
●[illegible](舊初七日)
●日暮九月八日(舊廿三日)

武田發賣品

夏の胃腸病

胃腸病·諸種慢性病·結核性衰弱

한분이 暑熱에 胃腸을 알케되엿슬때는 極度로食慾不振과 衰弱을 이르키여症狀은 急激히惡化합니다。

暑熱 이더힘을따라서 身體의各機能은鈍하야지며特히胃腸機能을容易하게 障碍함으로써 食慾은 不振하며榮養攝取를 困難케하야衰弱은極度에이르고맙니다。

그리하야벌서胃腸이虛弱한사람 病弱 衰弱한사람은 胃腸을調整하야食慾振起에힘쓸必要가잇습니다

이目的으로된『아페린錠』을 服用하면極히效果的이며 食慾을振起시키며 消化를도와榮養의吸收를 旺盛히하는한편 榮養素를補給하야榮養을充實히하며 抗病力을增强함으로써 夏節의胃腸藥피아울너榮養劑로써 賞用되고잇습니다。

食慾不振
消化不良
常習便秘
乳兒綠便
脚氣·貧血
發育不良
榮養障碍

食慾을振起시키며
榮養을充實히 할

アペテン錠
아페틴

55錠(40錢) 200錠(1圓)
500錠(2圓35) 1000錠(4圓50)
—約一月半分— —約三ヶ月分—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36—1236(C)

續夏漫筆

朝鮮人과飲食物【十九】

湖岩

一國文化를 飲食方面으로 볼때 衣食住가 그의代表的이다 朝鮮飲食은 朝鮮衣服, 朝鮮家屋과 한가지로 오랜傳統性과 아울러 特徵性을 가지것이다 朝鮮飲食은 勿論東洋米食中에 包含되나 그리脂肪的도 아닌 同時에 또그리淡泊的도 아니지만 一般으로 맵고짜고刺戟性이 만타. 이것이衛生上 퍽조흔것은 아니로되 數千年來이미 구든習慣이 되어 容易히 고칠수 업다.

朝鮮飲食은 녯날에는 宮中飲食과 民間飲食과 이러케二大系統으로 區分할수 잇섯스나 오늘날에와서는 料理店飲食과 普通家庭飲食과 두種類에 난호는것이 便宜할것갓다. 三十年前만해도 京城안에食道館, 明月館, 食道園가튼一流料理店이 생기지 못햇고 그것해야 賣食店으로는 장국밥집이 아니면 설렁탕집이 잇슬뿐이다.

그리고 地方都市에 賣食으로 開城湯飯과 平壤冷麵과 또는 全州骨董飯(비빔밥)가튼것이 거의代表的名食物이엇섯다.

이러케 料理店이 업는 옛날은 무슨宴會나 食道樂을 할에는 家庭以外에 다른道理가 업섯스므로不便한것은 말할것도업다.

現代式料理店이 생긴후는分業的이되매 모든不便을 더러주는同時에 家庭안에 窮屈하엿든朝鮮飲食을 內外人에게 公開하게되엿다. 말하면 商品化하엿슴이다.

그러나 오늘날京城안에 잇는 朝鮮料理店은 그飲食의 樣式과 調味와 및 그種類가 매우 複雜하고도 만허서 녯날 宮中과 民間의 飲食을 온통 混合하야 秩序업시 뒤범벅을 맨드럿다. 朝鮮飲食을 뒤범벅맨든것은 오히려 可하거니와 和式 洋式 乃至 中國式을 가저다가 朝鮮料理에 석거 一種「아이노꼬」料理를 맨드러 하는것은 더욱 可笑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도 時代現象의 反映으로 衣服, 家屋에 固有式外에도 和式洋式의 二重三重生活을 하고잇는것과 마찬가지다. 朝鮮에 觀光으로 오는 外國人이 朝鮮料理를 請求할때 이折衷式 料理를 내여논는다면 그야말로 嘲笑하는것이 아니냐. 조흔것은 朝鮮料理는 朝鮮料理다. 그 特殊性을 얼마큼 緩和하고 그만흔分量을 조금減少하고 또는 될수잇는대로 料理를 한꺼번에 羅列하지말고 손님이 먹는대로 하나씩 가저오는것이 조흘것이다. 이몃가지만을 改良하면 朝鮮料理는 거의 理想的이다. 故前大谷光瑞는 二十四年前京城에 와서 朝鮮料理를 맛보고 讚歎이 得度한그 美味가 和食보담 훨신 勝하고 最好物인 支那料理에 比하야 조금도 遜色이 잇슴을 보지못하겟다고 크게 稱讚하엿다. 大谷上人의 이朝鮮料理禮讚이 얼마쯤 못기조흔 辭令에서 나왓는지는 모르나 어쩨든지 朝鮮料理의 宮中으로부터 나온種類는 매우雅淡하고 高尚한風味가 잇는것만은 事實이다.

俗言에 洋食은 입에 조코和食은 눈에 조코 華食은 배에 조타고 하지마는 朝鮮食은 무엇에 조흘것인가. 그는 마치모든되 料理店의 朝鮮食은 어대내노튼지 조금도 부끄럽지안흔 高等料理임을 알어야하겟다.

그러나 一般飲食으로 말하면 衛生上에 注意하야 설렁탕가튼것도 좀더改良하엿스면 平民飲食으로 이처럼 美味가잇고 滋養分이 만흔 조흔 飲食이 또어대 잇겟는가. 嚴冬雪寒에 보이한설렁탕肉汁을 五錢이면 넉근이사먹을수잇스니 이것이 洋食「수푸」에 比하야 滋養은 훨신압서고 그價格이 아주低廉한것이 아닌가. 朝鮮人은 이러케高尚한 平民的料理를 가지고도 이것을 改良擴張하야 크게進出할 方針을 세우지 못하는가.

現代詩의生理와性格

長篇詩「氣象圖」에對한小考察 ⑥

崔載瑞

한文學이가 그小說에서 試用하야成功한手法도 結局이것이엿다. 다음에代表的인一例를든다. 讀者는 動亂의中國大陸을 念頭에두고 다음引用文을 읽기바란다.

國務卿「양키ー」씨는 受話器를
내던지고
倉庫의층층계를 굴러떠러진다
실론한복숭의 『쏘ー다』水
흠은 아모러치도아니한「이는」
敎會堂에서는
『하느님이여 카나안으로 이르
는길은
어느쪽人길속으로 뚫렷슴니까
?』
新譜의쪽들에서 禮拜는멈첫다
아모도『아ー멘』을채부르기젼에
門으로門으로 쏘다진다
(『의성론』으가르치기를『正直하
야라』)
十字架를 노피들고
動亂에向하야 귀를틀어막든
소리와비곤議會우에서 붉은수
염이쓰게웃는다
圖書舘에서는
사람들은 걱구로서는『쏘크라
레스』를拍手합니다
生徒들은『헤ー겔』의서투른算
術에 아조歎服합니다
어저께의同志를 江邊으로보내
기위하야
자못變化自在한 刑法上의條件
이 調査됩니다
敎授는 紙錢우에印刷된博士論
文을朗讀합니다
『녹크도업는놈은 누구냐?』
『……』
『대답이업는놈은 누구냐?』
『……』
『禮儀는 지켜야할것이다』
멜리는精界線에서 한紳士와한婦
人을험하취세웟스나
어느새그는 그女子의『스카ー
트』미테엇섯습니다
『베레』그늘에서 취한연놈이 博
愛主義者의 우스운우섯습니다
『빠텐』냄새에 얼떨진花嫁衣裳에는
價聚債者의 讀吉聲이
이지러진얼굴이울나여
당해진金庫에서
葬送曲을 죄울다
집웅을베끼운 골목어구에서
쫒겨난孔子님이 울고섯다
(「자취」로부터)

表面上아모런連絡도업는 以上몃節은 現代中國에 關聯하야 外交 宗教 文化 미리타리즘 現代都會生活을 다금다금 諷刺한것이다.

이外에 또對象을 (戲)諧化함으로써 諷刺의 效果를나타내는 手法도잇다. 이것은事實의 歪曲에서이러나는「아이로니ー」지만 그效果에잇서서는 그眞實性을 一層더强調한다. 다음一節은 이手法을 例示한다

『네타이』를한 食人種은
『니그로』의料理가 七面鳥보다
조탑니다.
살깔을 히게하는 검은고기의
偉力.
醫師『콥베ー르』氏의處方입니다
『헬메트』를쓴巡禮客들은
亂雜한 戰爭競技에 熱中햇습
니다.
會는 獨唱家인審判의號角소리
너무興奮하야잇슴으로
內服만입은「파시스트」
그러나伊太利는
泄瀉劑는일체禁物이랍니다.

前者가 客觀的이고 間接的이고 紳士的인 諷刺이라면 이것은 主觀的이고 直接的이고 野人的諷刺라할것이다. 이一節에숨어잇는 現代政治에對한批評은 可恐할迫力과 毒氣를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든다.

마즈막으로 이 (詩)人이使用한諷刺엔 또 하나特異한 다이프가 잇다. 그것은 유모라스한諷刺이다 勿論前二者가운데에도 유모아의 要素가 全然업는것은아니지만 거기서는 嚴肅한批評精神 或은 慄然한鬼氣의 그늘에감취에서 表面에는나타나지안헛다. 그러나 이詩人은 微笑의 糖丸을주어서 쌉쌀한맛을 혀바닥우에남겨놋는 간사한手法도가지고잇다.

『颱風의起寢時間』에선
『紳士들은 雨傘과 現金을 携
帶함이조흘것이다』
라는「府의揭示」板이잇고 颱風이
못나뒤에「쇠바퀴노래」에는
『市民은
우슴과 질투와분노와
모업는 라석과
원한의장마에 곰팡이낀
추군한雨縈의를 버서버리고
날개와가티가벼운
太陽의옷을 가라입어도 조흘
거다』

라는「府의揭示」가걸려잇다

【筆者는 按瓦의 實際과 文學의生命이라는 一章을加하야이 小論의 締結를삼을 豫定이엇스나 읽이紙數를 만히잡으뜻하야 이다음機會로 밀기로하얏다.】

(以上)

夕…陽

「漢 詩」

「薔薇」一押香

桐岡考選

佳作之五

京城府寬勳町百番地　石農 老樵

續續其花簇簇香
水晶簾外弄晴光
黃蕾團結金鈴小
綠刺尖抽玉箸長
韻亞玫梅堪覓句
樣依隣菊可携觴
政如年晚成功士
送盡青春名始揚

夏期學生通信

黃昏禮讚 (上)

…元山松濤園에서…

世專 李昌植

나는 黃昏을 조아한다 그中에서도 特히 여름날의 黃昏을 더 조아한다

어둠의帳幕이 것치고 붉은太陽이 東쪽하늘에서 솟아오르는 아침도 조치만灰色빗 저녁안개가 고요히 기여드는 여름밤의 黃昏이 더 조타 黃昏이라는 그音響부터가 벌서 아지못하는 魅力을 늣기게한다 그러기때문에 나는 여름放學가튼때 農村에도라가면 실바람나붓기는 논두렁이나 잔잔한물결이 흐르는 내人가에 안저서 저물어가는田園의黃昏을 마음것 享樂하기를 즐겨하며 都會에잇슬때도 또한 黃昏의품에안기여 마음가는대로 늣겨보기를 잇지안는다 그러나 내가 松濤園에와서 처음으로바다人가의黃昏을 보앗슬때 나는 일즉이 그만치 아름다운情緒와 深刻한 感銘과思索을 늣기게하는 黃昏속에 잠기여본記憶을 가지지못하엿다

바다人가의黃昏! 그것은 繪畵와가티 아름다우면서도 彫刻과가티 深刻하다 그리고 그옥한 詩情이 용소슴치고 여러가지 錯雜한 感情과情緒가 아롱지는 神秘의世界다

나는 오늘도 저녁을마친後 이러한黃昏을 차저서 바다人가로 뛰여나오지안엇던가?

벌서 黃昏의序曲은 버려지고 잇다

紅燈와가티 뜨겁게 나려쪼이던 여름의太陽은 支離한 하로의 旅程을 마친後 西쪽하늘에숨어들고 다만 붉으스레하게 남어잇는 餘映만이 흐트러는물결우에 비치여 쪼각쪼각 깨여잇고잇다 힌돗단배두어척이 아물거리는 아득한 水平線上에는 벌서 灰色빗 黃昏의帳幕이 으리여젓스나 바다우에와 松林사이로 그 날개를 펴처들고 고요히 기여드는것도 瞬息間이라라

여러사람들과가티 棧橋우에 걸처안잣던 나는 문득 사람의그림자가 업는곳에가서 黃昏의風景을 바라보며 고요한瞑想에 잠기고시픈欲望이 불연듯이 이러낫다 그리하야 나는 그곳을떠나 모래判을 거니러서 조고마한 시내가 바다로 흘러드는곳까지 올라갓다

낫이면 海水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우성치든 이곳이엿만 그들의발자최가 사라진 지금에잇서서는 規律的으로 언덕을 때리는 波濤소리와 잇다금 손님을찻고 오고가는帆船의 櫓소래가 잇슬뿐 四圍의空氣는 고요하다

西쪽하늘에 붉게 물드렷든 저녁노을마저 사라지고 어느듯黃昏은 지터간다

한조한조時間이 지나감을따라 東海岸의 캄바스우에 그려지는 黃昏의 表情은너무도 變幻無雙하고 神奇한天길이 잇다 아모리 世上에서 옷뜸가는 彫刻家와 畵家라고하더라도 이自然의 筆致만치 아름답고도 深刻한畵幅은 到底히 만들지못할것이다

밤아래서는 쏴ー하고 밀려드는물결이 사나웁게 언덕을때리고 하야케 깨여저서는 밀려나가고 또 밀려드럿다가는 밀려나간다 人間의 歷史가 記錄되기前부터 始作되여 永劫에 이로기까지 繼續될 바다와 陸地의 執拗한 宿命的 鬪爭은이時間에도 쉬일새업시 繼續되고잇다.

아득한蒼空에 明瞭한一直線을 그엇던水平線도 인제는 히미한 記憶의 주머니를 들추듯이 어렴풋하게 떠오르고 紺碧의바다는 검은채일(帳)을 친듯이 물결의이랑은 잘보이지 안는다

그리고 새파랗한늘에서는 잔별들이 반짝이고 下弦의달은 多情한그림자를 물우에 던저서 金빗물결을 이루고잇다.

金剛山雜草

療養「노ー트」에서

⊖ 李甲燮

H兄!

이記錄이 혹시 兄에게 저루한 늣김이나 갓게한것이 아닌가하야도리혀 未安한생각이업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나는 나의이번 旅行에서 엇는最終의 感激을傳하지안흘수업습니다

兄! 나는 아라가이도 억지로저바리라든 情景의바다 저海金剛으로 가는것입니다 우리를 실은車는 저녁時間 三日浦언덕우에 머물엇습니다 이蒼海가티넓은 물음 必然 어느바다가의 妙한 港口일것갓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도 바다와 接한곳은 업습니다 分明히한 湖水일뿐입니다 저바른한편엔 섬한個가 모양잇게소사잇고 그北쪽으로는 주주축들가를 바우 세個가 물속에서 머리를 내밀고잇습니다그리고 그이쪽 斷崖갓가이 갈갈하리만치 고요한 저 물우에는 낙시질배가 떠잇습니다 그들은釈鄕일까정 太公望의 삶을 맛보아보는것입니다.

兄! 나는 돌아서서

金剛 山쪽을 바라봄니다. 集仙峰 山발은 東便을 向하야 구름구불 달리다가 東海에서 멈춰버리고 萬物相山脈도 亦是 東으로 向하야 각금 여기저기다 일움업는 小金剛을 남기고는 이 三日浦를 맨들어 노흔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平地으로 기여가다가 最後로 저기뵈는 저 바다에다 海金剛을 남기고 그만 바다에 아주 빠저버리고만것입니다.

兄! 나는 金剛山이 빠저죽은 ㅡ바다속에서도 살아잇는지 모르겟지만ㅡ 저 바다로 어서 가야하겟습니다.

×

우리는 東海바다人가 白沙場을 걸어가면서 저바다人끗, 하늘끗을바라봅니다 茫茫한바다입니다 샛파란바다, 아일롬다운

바다 가를걸어가면서 우리는 人間을 비웃습니다 兄! 큰波濤가 일기始作한니다 아득하게 지내가는 저배이쪽에는 각금각금 白雪가튼물가둥이 생겻다가는 살아지고살아지고합니다.

우리는 배를라고 아주바다人끗까지라도 가볼勇氣로 저샛파란바다로 들어갑니다 지금 막 松島를지냇습니다 波濤가옵니다 漸漸더큰波濤가옵니다 나는 우리의航海를 中止하기로 提議합니다 그러나 P君은 옷기만합니다 우리배에는 婦人한분이탓습니다 나는 그이조차 하지안는提議를 해노코 속으로 男兒의體面을 생각해봅니다

兄! 波濤는 漸漸 더萬합니다 狂亂이 일어납니다 山덤이가튼

波濤 를넘고나면 깁흔구렁으로 떨어저들어가는것입니다 나는 어느듯 P君의옷자랑을 단단이쥐고 그의눈만 바라봅니다 그의눈동자에萬一 危險의信號만오면 나는 이배를 떠날作定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만불으고안젓습니다 그이를 危險을 늣기지안호리오마는 나를 安定식이기爲하야 일부러 泰然自若한것이겟지오

兄! 航海는 無事히 뭇낫습니다 나는 바다에서나서 바다에서 죽는사람의生涯를 생각해봄니다

兄! 우리는 다시 海金剛을바라봄이에 안저서 저바다를 바라봄니다 우리一行이 지내는곳에는 아즉도 물결이 셉니다 그물결사이로는 각금 물개가나옵니다 그려

H兄!

나는 期於히 이바다에서 海水浴을 허지안흐면 떠날수가업습니다

나는 波濤가 남기고간 조고마한石灘에서 沐浴을 始作한것입니다 나를 흔냄波濤는 바다人가까지 짤아옵니다 나는 몸에다 바다人물을 조곰 찍어발으채 끄냥조겨올라오고 말앗습니다

P君은 가만히안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바우를보오 저바우가 저긔에 생겨낫는까닭으로 물결에 달코닭는구로는 다고는 다시 무슨두거운생각에 잠기는것갓습니다

兄! 나는 바다人가에 나려와서 조개껍질을 줏고잇습니다 이조개껍질이 來日모레쯤은 兄의책상우에 노혀질는지도 모르겟습니다 (終)

나의關心事

專攻하고잇는方面이 哲學이니만치 平素에留意하고잇는 點도 때를따라 이러터할 變動도거의업는것갓다. 몃해前에나를괴롭히던 問題그대로가 지금도 나의關心의 焦點이오 主題가되여잇다. 나의 出發點이오 歸着點은 언제나 『우리의 現實』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나의게 잇서서는 大小輕重의 差異는 잇슬망정 모든 世上事가 한가지 『우리의 現實』이라는 『도관이』(坩堝)속에서 서로 엉키어뒤끌코잇는것가티 보힌다. 假使보는 角度가 달러진다 하드래도 結局은 視線이 우리의 발뿌리아페 이 現實로 떠러지고야만다. 저西班牙의動亂이 지금의世代的特殊性을 매우深刻하게나려내기始作한것의 一例로볼수잇다면 그와도 恰似한힘이 極東에서는어떠케 숨어흐르고잇는가. 다시 『우리의現實』도 決코그커다란波動의밧게 흘러잇는것이못되다면 바야흐로 엇더한段階에서 헤매이고잇는가. 果然 人間學이 近來에만히論議되여오다. 그러나 그저더퍼노코 人間이란 무엇인가 자 나의關心을 잇슬기에는 그무릉이 너무나 설미적지근하다. 漠然한 人間이아니라 가장具體的이어야할 『우리』가 問題다. 또 存在論이 代哲마치現學의 中心的課題인것가티도 보인다 그러나 想像으로서 비저내여진요갓 觀念的存在에對한 어색한理論이 나의게 滿足을 줄理도 萬無하다. 現實的存在의把握으로 나의關心은 어느때나 集中된다.

大體『우리』란누구인가? 現實的存在는 엇더케 把握하여야되는것인가?

우리의現實

朴鍾鴻

一革命詩人記念像一 帝政時代 『우크라이나』의 革命詩人으로서 有名한『타라스그리고레빗치·시브첸코』氏의 銅像記念碑는 最近에 建設되여 地方民衆의 尊崇을밧고잇는데 이記念像은 蘇聯의有名한 彫刻家『마니저ー』氏의 손으로된것인바 그成果는 民衆의賞讚을밧고잇다. 寫眞(上)은 『시브첸코』氏 (下)는 赤衛軍人과 勞働者의群像.

將來의兵器

主로電氣用品에關하야 (1)

方聖熙

戰爭은勝利를 目的하고 勝利를 獲得하려면 敵보다强한 腕力과 智力이 必要할것이다 그러나이 腕力이나智力은 生理的限度가잇는것임으로 敵보담 强하여지려면 이以上의것 卽兵器가 必要하며 이必要로 말미아마 兵器가 생기고, 또發達하는것이다.

戰爭은 人間鬪爭에서 最大 最後의것임으로 戰爭에는 人間能力의 全部를 傾注하려한다 故로 兵器는 其時代時代에 잇서서 最尖端의 發達品을 使用케되는것이다.

人間鬪爭의 武器는 原始時代에 잇서서는 단지腕力 智力뿐이엿고 漸次頭腦가 發達함에따러 自然物(石、岩、水力、草木等)을利用하고 다음은 人工的武器(提棒、弓、刀槍)를使用하엿스며 火藥이 發明되자 大砲、小銃을 使用케되엿고 最近에는 科學의 跳躍的進步로말미아마 所謂科學兵器時代를 이루고잇다.

그럼 果然 將來戰爭에잇서서는 如何한 神奇 怪妙한 兵器가 出現할것인가 爲先 歐洲大戰時에 出現된 主要한 新兵器를들면

一、탕크(戰車)裝甲自働車類의機械化兵器
二、航空機과 그投下爆彈等의航空兵器
三、潜水艇等의 化學兵器

이以外에도「카이젤」이 敢히 世界를 相對로 宣戰할수잇게한「하ー바」氏의空中窒素 固定의 成功、衣服의原料를 材木에서 取하는等의 無數한 發明을하는 新兵用品이 出現되엿다. 그러나 將來에잇슬 戰爭이 萬一 勃發된다면 이以上의 威力을 가진 兵器가 如何한 怪力을 가진 兵器가 出現될것인가는 各國에서 極秘中에 研究中이므로 推測할수업다 그러나 只今까지 公表된 研究를 들어 大綱 推測되는 兵器를(電氣에 關한것만)을 主로하여 一、電氣大砲 二、怪力線 三、無電操縱兵器 三項으로 分類說明하여 보겟습니다.

電氣大砲及電氣小銃

一、電氣銃의 原理

軟鐵筒에다가 電線을 감고 이 電線에電流를通하면 軟鐵筒은 磁石과가튼 性質을 가지게되여 鐵片等의 金屬을 吸引하고 電流를끈흐면이 性質을 消失한다 이것을 電磁石이라稱하며 라듸오、電信電話、電鈴等 電動機에는 使用치안는곳이업슬만치 主要한것이다 이것은 軟鐵에다 電線을감지안코 單只 電線만을 螺旋狀으로마러 圓筒形을 만들어도亦是 電磁石과가튼 作用을하며 特히 이것을「쏠레노이드」라稱한다

電氣銃은 이「쏠레노이드」를 使用하여 彈丸을 吸引發射케하는 方法과 亦是電流磁氣感應作用을 利用한 二方式이잇다 그러나그 仔細한 說明은 너무專門이되며 지리해서 略하고 後日로미루겟다

朝鮮商美協創立

朝鮮의 商業美術의 硏究獎勵를目的으로하고 斯界의 有志멤버이 朝鮮商業美術家協會를 創立한바 事業으로는 每年春秋二回에 作品展을 開催하며 事務所는 市內南大門通一의一二一이다 그리고 會員은 다음과가다고한다

金鳳寅 權明德 姜 湖 李戊成 李康濂 李相春 申永均 嚴大燮 鄭 格 崔延幹

讀者社交室

▲京城府內有敎映畫社에 못습니다 朝鮮語全務壁 蓮花紅蓮傳은 언제나오지안습니가 아는분이게시면 讀交室을通하야 알녀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仁川一讀者)

▲二十二日附의仁川求婚女氏에게適當한配匹이잇스니住所를通知하시요 平壤郵便局留置 白致煥

▲仁川求婚女에게 二十二日附社交室을通하여 貴下의求婚記事를보고 左記住所로書信하오니有意하시면 直接面談하여주시요. 單方年齡二十六歲이며 洋服商을 經營합니다 平壤府大和町四ノ二號 革新洋服店內 劉鳳熙

▲讀者社交室欄內의 今月二十二日付로 仁川求婚女子의 通知를것자와 그通知者를 紹介하십을 求하는바입니다 本人은年齡이 六十이오며 多年敎職을執하든바 老境이라 果樹園에서 農作을 經營하옵는바 但五年前에 喪配하고 鰥夫로잇스나 子女가 잇는關係로 困難한生活을 하오며 偕仁川女子의 獻身的誠性까지 說明이기 故以仰問하오니 該女子에게 通知하심을 切企하나이다 餘謝後不備 元山府中淸里中輿農園主 李德一

▲社交欄을愛讀하야 請婚코자합니다 請婚코자하는者의居住氏名 慶南密陽郡下南面守山里七四九 高秀廿五歲 元月守 仁川求婚女에게로 알여주시요

▲仁川求婚女에게 本籍은京城이고 卅六歲이며 東京某大學卒業하고 지금 이곳에서 商業을 經營中이고 財力도잇슴니다 前妻는離婚하엿스나 子女는 四男입니다 本人이 本新地에서相當한事業中입니다 당신의住所를알여주시면 卽本人이 卽時仁川을나려가서 面接對面하고 相議하겟습니다 사진을보내주시면 조켓습니다 平壤南山町三七 趙秉玉

▲「仁川求婚女」에게=本人은二十六歲의 商業人이온대 前室所生은無하옵고 左記條件이 合하오면 婚姻코저하오니 有意하시면 直接問議하소서(寫眞을添付하여)

條 件

一、健康
二、容貌는普通이되 體格과手足이아름다운분
三、日語로 通話할수잇는분

平壤府慶上里一一四의三一 鄭玉楨

▲仁川求婚人에게通知하나이다 本人은三十二歲된男子 有意하시거던此住所로片紙하시면자세하게 回答을하겟습니다 北靑邑內里一九君○金方 全一男

▲八月二十二日付仁川求婚女의 答 社交室을通하여 回答하오니詳細는左記住所로問議하여주시요 咸鏡線咸州驛前五里精米所 安興宣

▲仁川二十二歲의求婚女에게答합니다 非商人이나愛妻이되기는 無意한지요 適當한人士의게紹介코저하나 此가未詳하여反問하오니 直接으로나 本社社交室을通하여住所氏名과 前記如何를左記로 回示하여주시압시요 咸鏡線定平驛前 金鍾滿方 全徹塵

▲仁川求婚女性에게 당신의뜻을本社交欄에서바더아랏나이다지금伴侶者가업는孤獨한사내이외다 기여코 이住所로 편지해주시기를바랍나이다 京城府竹添町三丁目四〇九 三木田張所內 金乙得

▲仁川求婚女시여 當身의要求에應코자하오니 左記住所로御旺臨하신後 相談하시옵소서 仁川府內里一三九番地 金○○

▲今月二十二日附 仁川求婚女분에 答함 弟는 大田某官廳에 勤務하오며 今年 二十七歲이오며 學歷은 仁川商業學校를 卒業하온者이오니 有意하시오면 左記住所로 直接問議하시기바람 大田春日町一丁目 東華旅館內 洪 生

▲仁川求婚女에게 八月二十二日朝鮮日報(第五千四百八十一號)社交欄에 發表한 貴下의求婚事情과條件을보앗습니다. 本人이亦是貴下와如한人物을求하는中이온데 左記住所로 直接問議하옵시기를 바랍니다 慶南金海邑內會洞里 金鍾萬

▲貴報八月二十二日付夕刊社交室을通하야 求婚하신다는 志를 봇고 如是通知하오니 有意하시옵거든 即接時間은 午後一時로、至七時까지 來議하여주십을 務望함 京城府南大門市場 諸葛濤

여드름 부스름에 第一조흔藥!

여드름·부스름·에第一等가는良藥입니다. 여러가지藥과方法에失望하신분들은 이藥의效果만은 반드시滿足을늣기실것입니다.

벼룩빈대等의毒虫으로가려울時

벼룩·모기·빈대·치지等의毒害에물려가려울때에이藥을조곰부치면不愉快한病症과가려운症은이친드시解消됨으로重寶와갓습니다.

美容藥으로써!

入浴後와洗面後에使用하면爽快하고、여드름·부스름·을防止하야 살바탕으로부터 美麗하게합니다!

にきびとり美顏水

얼골에거름끼도는분、얼골거문분에第一等의 水白粉!

△特別化粧力

이水白粉의獨特하고優秀한美容成分과微妙한살빗의作用으로、낫빗이히지못한분과낫에기름도는분에、숙성무린美麗하고산뜻한化粧美를나타내게됨으로大評判!

肌色美顏水

連載小說 布袋記 (8)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신의잇는편에 (十八)

제호소저가 한편으로는 리교창과 혼인을 하게된것을 생각할째 그부친의 부모된 마음으로 그렇게한것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눈을 꺼벅거리고 안젓슬 백운국선의 모양을 생각하매 더욱 불상한 생각이 생기엿다.

그러나 제호소저는 부모의명령도 지중하려니와 백운국선에게 대하야 백신이 되엿다고 내밧는것은 너머나 매정한짓으로 생각키는 마음이 더욱컷다.

『아아, 백운국선의 눈이 먼것은 멀엇지, 눈이 멀엇다거니 사랑의 눈도 멀엇스며 신의를 직히려는 마음와 눈도멀엇든가. 눈먼 사람에게는 사랑이 업다는말이 웬말이며 눈먼 사람에게는 신의도 직혀주지 안는다는것이 이 무슨 사람의 도리일고. 사랑일수록 신의가잇서야할것. 신의가잇는 사랑이라야 그 사랑이 기사랑. 신의가잇는 사랑이라야 그 사랑이 튼튼한사랑.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사랑이 사랑. 쎌째는 빨끈 더격의 사랑. 떨때는 빨끈 더욱고 떼뒤에는 얼른 식는 한러구름과 가튼사랑. 이것은 모두 신의가업고 양해가업는 사랑. 원래 부부간 사랑의 파탄은 서로 사랑의 신의, 사랑의 양해를 직히지못하는 그럼으로 부부간이 되려는 남녀일수록 그사랑을 먼저 속삭거리지 말고 그사랑을 지킹하야갈 신의와 양해의 도리를 힘써 궁리해야할것을. 대저 부부간이란 백년을 가치 지내사랑. 남편도사랑 안해도사랑. 사람과 사람이 백년을 괴와하고 지내는동안 어찌 정에 석기는일이 생기지 아니하며 마음에 맛지아니하는일이 생기지 아니하링. 그 감정의 충돌. 그 섬사의 어그러짐이 사랑을 문허 트리는 시작. 그럼으로 그감정의 충돌과 섬사의 억우러지는것을 미리 물어 막는것이 신의와 양해. 조강지처를 버리는 남자는 그한행에 대한 신의와 양해를 직히지안는 남

장 조강지처로서 그 남편을 버리는 녀자는 그남편에 대한 신의와 양해를 이저버린녀자 그가처사랑이야 누구나 모두 끌가튼사랑. 그러나 첫사랑의 고개를넘는 사랑은 모두 슬픔을 일허버리링. 아아, 백운국선과 이몸의 사랑은 저세속사람의 사랑과가튼 사랑을 약속한것이 아인사랑. 그러커니 백운국선의 얼골에 두눈업는 것이 무엇이 관계될것 잇스며 내얼골에 두눈잇는것이 무엇이 떠떠하리. 백운국선과의 사랑의 신의를 깨트린것은 더말할것 업시 백운국선이 두눈이 먼는탓. 그러커니 내두눈을 마저빼면 눈업는 백운군선, 눈업는 이몸. 그 두몸이 전날에 약속한대로 한몸이되여 그사랑의 신의를 영영 직히려는데 아무 다른핑계가 업슬것. 빼야지, 빼야해내 두눈까지 빼야해. 』

하며 제호소저는 평소부터 부부간 사랑에 대하야 생각하얏든것을 혼저서 눈물겨운 목소리로써 저저히 일커르며 자긔의 두눈까지 빼버릴것을 생각하엿다.

『빼야지 빼야해. 내 두눈꼭얼는빼야해. 그런데 어떠케 빼야 올흘고? 일직 눈을 빼본일이 업스니. 가위로 비여 낼가. 쪽집개로 집어낼가. 인두로 미러낼가 회저가락으로 찔러낼가. 어떠케 빼면 똑백운국선의 두눈과가티 멀도록 빨고. 』

하며 제호소저는 가위, 인도, 쪽집개, 회저가락을 모두 몰아다가 아페 노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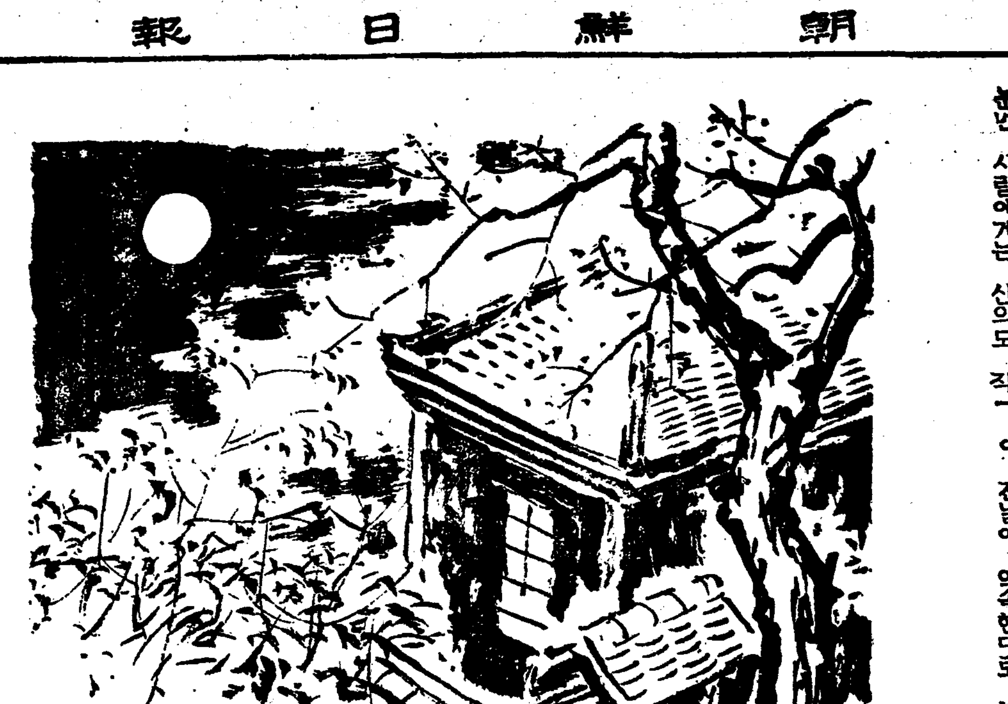
그리고 큰 경대까지도 아페 다 노코 자긔의 새별가튼 두눈을 드려다 보앗다.

그 두눈에서는 명랑한 괴운이 더욱 떠도는듯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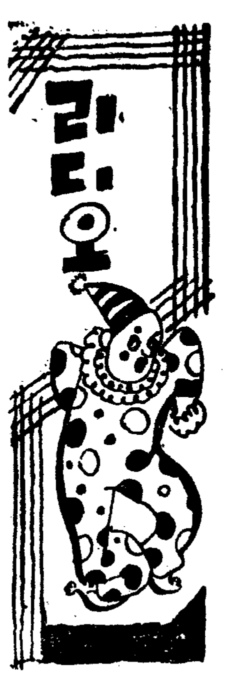
때는 이미 깁흔밤!

중천에까지 소서오른 밝은 달빗치 사창에 비치며 방바다에 물결과 가리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너울거린다.

제호소저는 그달빗이 보기에실혀 문장을 내려막고 다시금 경대압헤 안젓다.



라디오



二十六日 (水曜)

◇午後六時三〇分 唱歌와童謠 一、꾀꼬리 二、물새 三、대장간 四、어기여차 五、나팔꽃 六、바람 七、자장가 八、버레의노래 九、꼬부랑할머니 十、십오를가다가 水下洞公普生徒 伴奏 李榮應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趣味講演『古木과迷信』 培花女高 李德鳳
◇同八時 講演『朝鮮特産物巡禮』(六) 工産物(二) 總督府商工課 鄭在性
◇同八時三〇分 놀양外 一、놀양 二、압산打令 三、뒷산打令 李命山 李命萬 卓福萬 金泰運
◇同九時 映畵이야기 李感興
◇同九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가、短歌 滄浪歌 三、唱劇調 바라령 姜太弘 鼓手 丁元褒

第一放送

◇午後六時 兒童劇 京城童話劇研究會 H·W·쇼스
◇同六時二五分(小)趣味講座 C·K빼커 吉永礀山
◇同七時三〇分(東)講演 海軍大佐梅崎卯之助
◇同八時(大)義太夫 竹本伊達太夫外
◇同八時三五分(東)기-타獨奏 保阪益子
◇同八時四五分(東)小唄 市川三升外
◇同九時(東)講談 神田伯龍

二十七日 (木曜)

◇午後零時五分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망아타령 三、한강수타령 四、노들江邊 五、흥타령 六、도라지타령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合奏 白鷗 佳月 一、合奏 童謠集 1 초생달 2 개골이 3 오빠생각 4 조각배뜻방석 5 저녁놀 二、五重奏 歡喜行進曲…瀨戶口作曲 三、合奏 放浪歌…프리멜作曲 四、五重奏 바르세로나…에반스作曲 五、合奏 黃昏…李東坡作曲 六、五重奏 東洋風舞曲…두보미스키作曲 알파·하-모니카·밴드 指揮 崔一出
◇同七時 課外講座『地球는식어가는가』 梨花女高 輸妹來
◇同八時 講演 "朝鮮樂에對하야" —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 李王職樂師長 咸和鎭
◇同八時三〇分 雅樂 一、瑞日和之曲(管樂) 二、堯天舜日之曲(細樂) 三、壽延長之曲(合樂) —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 指揮 樂師長 咸和鎭
◇同九時 獨唱 一、조스랑의자장가…고다-루作曲 二、띠놀江…이와노비치作曲 三、小夜曲…드리고作曲 四、歌劇"椿姬"中에서 1、"아-그대엿던가" 2、"꼿처서꼿으로"…베르되-作曲 피아노伴奏 高鳳京 朴景嬉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水宮歌 金綵守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速成獨語講座 登張信一郎
◇同一〇時三〇分 常識講座 岩村俊雄
◇午後零時五分 長唄 半七마리끄
◇同六時二五分(福)趣味講座
◇同七時三〇 心田開發 龜山弘應
◇同八時(東)피아노獨奏
◇同八時二〇(東)歌澤 哥澤秦光大夫外
◇同八時五〇(東)浪花節

二十八日 (金曜)

◇午後〇時五分(東)하-모니카
◇同六時三十分 童話 "사이조흔동무" 金福鎭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 "軍水이야기"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城大生理學敎室 金鎭仁
◇同八時三十分 라디오·드라마 "生活圖" 二幕 崔南善 東京學生藝術座
◇同九時十分 報念 一、報念 二、大字백이 三、異打令 卞浣紅 曺弄玉
◇同九時三〇分 名曲鑑賞(레코-드演奏) 一、管絃樂……巴里콩세르·라무-르管絃樂團 "交響詩" "프시세"……프랑크作曲 指揮 삘프- 二、獨唱……크레이베르 "봄소래"……요한·슈트라우스作曲 解說、朝鮮音樂家協會 李家相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英語會話講座 하바드·렛드만
◇同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午後〇時〇五分(東)하모니카獨奏 弘田龍太郞 合奏 全日本하모니카聯盟 同演奏
◇同六時〇分(大)童話劇 BK 고도모써클
◇同六時二五分(東)趣味講座 增山顯吉
◇同六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〇〇分(東) 杵屋六郞外
◇同八時四〇(大)尺八獨奏
◇同八時五〇(東)物語 公

恐怖와憧憬

『가-트르-드·마이켈』이가 恐怖와憧憬을나타낸表情을創出하얏다

演藝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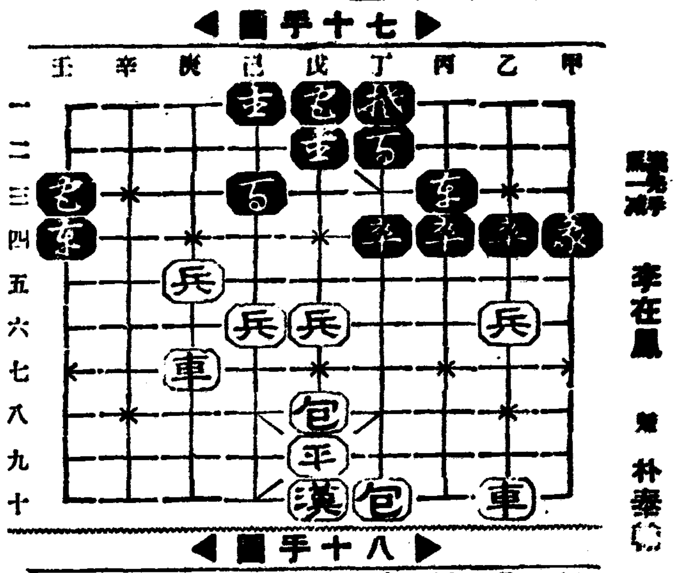
쏘니야·헤이孃 映畵界로進出

【할리우드發同盟郵信】 피규아·스케팅界의 明星、놀웨이의 소니아·헤니孃은 今番 映畵界進出을 決意하고 廿世紀映畵社와間에 契約을 매젓다 먼저 스케트를 主題로한 映畵를 一本박일豫定인데 그인만큼 容貌、姿態가 함께 어여쁜 자못期待된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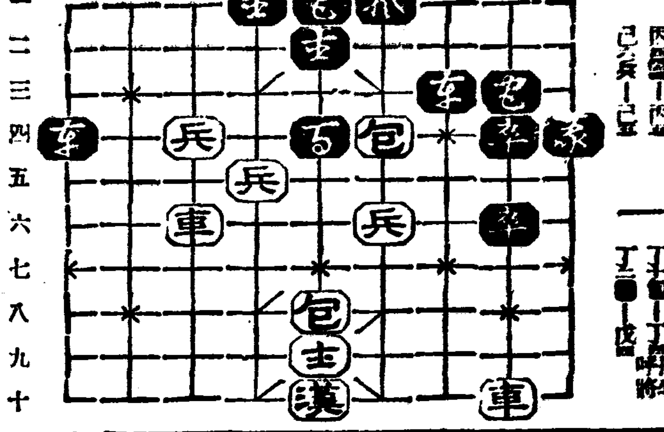
四段 李在鳳 對 朴泰□

◀圖手十七▶



丙兵一丙六 壬包一乙五 庚車一庚六 丙四一丙五 己兵一己五

◀圖手十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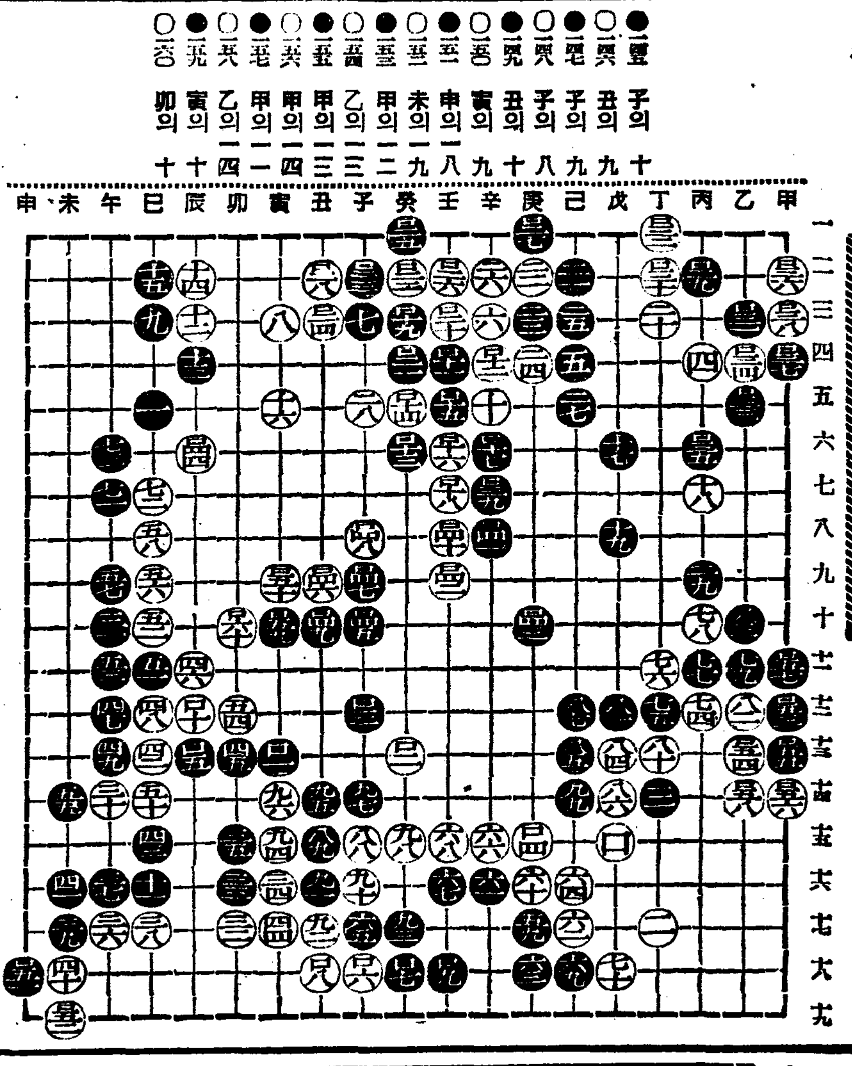
丙卒一丙六 戊兵一丁六 丙包一乙六(打兵) 丁包一丁四(打卒 呼將) 丁二一戊二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0=

白 蔡福文
黑先 丁奎春

●一三五 子의十
○一三六 丑의九
●一三七 子의九
○一三八 子의八
●一三九 丑의十
○一四〇 寅의九
●一四一 申의一八
○一四二 未의一九
●一四三 甲의一二
○一四四 乙의一三
●一四五 甲의一三
○一四六 甲의一四
●一四七 甲의一一
○一四八 乙의一四
●一四九 寅의十
○一五〇 卯의十



▲對局者談 黑白雙方에 棟傑이 旣備하니 裝飾뿐이다 黑이 先手로 白의 縮少要處는 子의 十이 差可하고 申의 十八甲의 十二가 其次는된다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畵科 (四君子畵包含함)
西洋畵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入選作中에서左記二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廿七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廿八日至九月三十日(但前記支局을通하야 搬入할者는 二十九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本社 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要求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原料は植物性蛋白質
品質純結晶

親友의 病問安에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特히恢復期의 病人이면 더욱조타 입맛이나서 잘먹으므로 快癒를 速히하는선물

宮內省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3—N

●學校의成績●
은頭腦가第一이오 頭腦는머리가무겁고 가려서마리를대로工夫 아니될時에는工夫

ノーシン (노-신)

●頭腦가가볍고明快해저서 工夫시효가잘됩니다 各藥店에잇소●

벗꺼풀의살결을
사랑스럽게어여뻐집니다
牛乳石鹼
No. 271

若草映畵劇場
電(本)三二五四番
廿四日ヨリ三日間 晝夜三回入替ナシ
▲モロッコ パ社 ゲーリークーパー◆マレーネディートリッヒ主演
▲ラヴ・パレード パ社 シュヴァリエ◆ジャネットマクドナルド主演
▲たいらづ小僧 LCP
二十五日ヨリ七日間
▲大東毎日 オリムピックニュース
一二三四回同時上映

第一劇場
八月廿六日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名畵特別提供週間
毎日三回晝夜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活劇篇 爆彈도락크
랄바-트、히리야氏監督
오레스포-드氏 主演 마리안마슈孃
松竹蒲田傑作品全發聲
現代名篇 人生のお荷物
名匠五所之助氏監督
田中絹代孃主演
蒲田올-스타-助演
黃金町五丁目 電光一五五番

中央館
當이廿五日大公開
盛夏特別興行週間!!(三日間)
第一回 午前十二時
第二回 午後二時四十分
夜之部 午後七時ヨリ
階上二十錢 階下十五錢
新興キネマ提供
阪妻プロ超特級豪華版
阿彌陀時雨
原作 土師清二 監督 長尾史錄
阪東妻三郎 二役主演
森靜子、金澤美津子、櫻木梅子、
新興キネマ超特級豪華版
前科もの二人女
原作 長谷川伸 監督 石田民三
鈴木澄子 森靜子 主演
永樂町 電光二三五番

浪花館
八月二十六日より九月一日まで
上映時間表
歡樂の女王 バージニヤ・ブルース ロバート・テーラー 主演 12·00 3·21 7·10
朝日オリムピクニュース 第三報 1·10 3·10 4·30 8·22
自由の天地 夏川大二郞·高杉早苗主演 1·21 4·40 8·35
入場料金 40錢 60錢

元山稅署事件益擴大
現稅署長에飛火
鑛山脫稅件과別個로또進展
安邊署員繼續活動中

【安邊】함남 안변경찰서(安邊警察署)에서 류치취조중에잇는 원산세무서 외우사건(元山稅務署事件)은 이십오일현재 관계자 류치총수가 도합 여덜명으로서 그들은 련일 엄중한 취조에 따라서 죄상이 드러나 하나 둘식 백일하에발로되기 시작하야 지난이십삼일에는 원산의 일류료리점 마루요시(丸芳)주인 상전종태랑(上田宗太郞)을 잡어 류치시키드니 뒤니어 지난이십오일에는 대산원산세무서장(大山元山稅務署長)을 소환하야 아츰부터 무엇인가 장시간 취조를 거듭하고잇는데 동서에서는 사건을 의연극비에 부치고잇스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길이 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안변군 위익면 즉 대광산(大鑛山)주인 김이규(金以奎)가 지난오월에 자긔광산의 탈세(脫稅)를 목적으로 원산세무서 직세과장(直稅課長)전미양(田尾) 주관(屬官)리원림(李元林)을 수차 료정에 초대하야 주연(酒宴)을 베풀엇도잇섯고 따라서 원산 삼중정오복점(三中井吳服店)등의 상품권수백여원어치를 가저다주엇다는혐의로 금번의검거를 보게된데 취조에따라서 사건은또다시 별개방면으로 진전되여 원산일류료리점에서 세무서당국자에게 증뢰(贈賄)한사건이 또드러나서전긔 료리점주인 상전종태랑(上田宗太郞)이 검거되자 뒤니여 세무서장의 소환까지 보게된것이라는데 사건의진전이 자못 주목된다고한다

公州에도瀆職事件
忠南道警察部員突然活動으로
現職署長等嚴重取調

【公州】지난이십일에 충남도경찰부 곡중(谷中)경무과장은 최경부 도전(島田)감찰관과 안원경부를 대동하고 공주경찰서에 낫타나 당서회계장부를 조사하여보고 도라간후 익일에최경부는 다시 공주에와서 각방면으로 활동하야 증거인을 조사하야본후 서장모씨를 경찰부로 소환하여다 취조를하고 당서장은 지난이십사일 아침에 공주에도라와스나 당서에는 출근도안코 사택에 은거하고잇다는데 사건 내용은 극비밀에 부치므로 자세히는 알수업스나 수뢰(受賂)의 공정사실이 탈로된듯하야 사건은 장차어느정도까지 확대될는지 일흥주목되다고한다

躍進新昌港에 電話架設實現

【新昌】약진도상의 함남신창항은 면부면 이래 금춘까지 다변의 일로를밟아 그면목이 일신되여오든바 다변간 현안중의 하나인 전화가설문제는 최근당국자의 적극적원조와 일반의 열성으로 겨우구체적으로 매진하게되야 벌서부터 전주수립공사에 착수하야 목하 착착진행중인바 본년도 신청자는 전부 삼십칠개소로 구월상순경에는 공사일체를 완료하고 종래의 우편소중계통화에 다대한 시간을요하든 불편을일소하게되는 동시에 시외로는가장긴한 련락지인 함흥 원산 북청 신포 청진 성진 리원(咸興、元山、北靑、新浦、淸津、城津、利原)등지간에 중계전화이나마 통화케될것으로 일반은 막대한편리를 어덧다한다

僞造藥을파는 不良行商出沒
元山署에서二名檢擧

【元山】최근 원산시내에는 모 제약회사(製藥會社)의 외교원이라고 사칭하고 약을주문밧고는 계약금만 바다먹고 다라나는자가 만타는데 그중에는위조약(僞造藥)을 파는 간악한상인도 준동하고잇서서 당국에서는 이것의처제에 세심주의하고잇는이때 지난이십삼일에는 시내명석동 구명당약방(救命堂藥房)에 두명의 매약회사의외교원이라는자가 나타나 위조속산도녕을 팔라다가 마침그곳을 지나든명

醉睡中巨金見失
虛僞强盜告發
留置場身勢된男子

【海州】송화군교정면광암리(松禾郡交井面廣岩里)삼백칠십번지에 사는 강창근(姜昌根)(二○)은 지난오일 자긔집에서 벼팔은돈을 가지고서 십리가량되는 교정면 판정리(交井面板井里)로 밀을사러갓다가 가격관계로 밀은사지 못하고 소주만 잔뜩사먹고취하여 돌아오다가 동면구포리(東面九浦里) 유창일(劉昌一)에게서 꾸엇든돈 이십원을 바더가지고 거귀서 도술을먹고 몽롱하게 취하여가지고 돈백원을 수건에다 싸서고의춤에다 질으고집에돌아오든중 //장지롤//이라는 산길에다 다라 누워 잠이들어오후두시부터 다섯시까지 내처잣는데 그사이에 전긔돈 백원은 누구에게 절취당하고말엇다 그는집에돌아와 처자식을 볼낫이 도저히업서 고생각한끄테 강도를 맛낫다고 핑계대여 면목을세울 결심을하고 집에돌아와 장남을시켜 주재소(交井駐在所)에 허위신고를 하엿든바 아모래도 이상한점이잇서 그를 엄중이 취조한 결과 전긔와가튼 사실을 자백하여 경관들을 아연케하엿다는데 그는처벌규측위반으로 구류십일에 처하엿다다한다。

元山第二公立普校
大講堂建築實現
總工費二萬三千圓也

【元山】원산제이공립보통학교는 일천이삼백명의 어린이를 교육하고잇는곳이나 아직것 대강당이업서서 례식이나 큰집회시마다 큰 곤난을당하야 왓섯는데이번추본(秋本)교장의 열렬한 활동에의하야 이만삼천원이라는 대금이 모집되여 이달내로 대강당을 건축하게되엿다는바 이로서 동교는 명실공히 원산초등교육계에잇서서 내용과 외부에 제일위를 획득하게되엿다고한다

咸安記者同盟
定期大會盛況

【咸安】오랫동안 침체과정에서 헤매이든 함안긔자동맹(咸安記者同盟)에서는 지난이십사일 오후두시에 함안읍내 군북관(郡北館)에서 지방유지 사십여명의 방청알에 준비위원 박승표(朴承杓)씨의 의미 심장한 개회사를 비롯하야 림시의장 안창순(安昌淳) 긔록 박승표(朴承杓)량씨의 진행으로 좌긔사항을 토의하고 동시에 함안긔자동맹을 함안긔자단(咸安記者團)으로 개칭하기로 가결한후 지방유지 조현대(趙鉉大)、리원세(李元世)양씨의 필진투사(筆陣鬪士)다운 신선한정신과민첩한 활동으로 조선민중의 여론을 대표하여 달라고 의미심장한 축사로서 동네시경에 폐회를 선언하고 이어 함안읍내 유지인사의 초대연(招待宴)으로 자리를 옮겨 군북가야 두곳 낭자군(娘子軍) 대표 박금화(朴錦花) 김봉주(金鳳珠)의 축배도 화긔애애리에 긔념촬영을맛친후 꼿을 마치엇다는데 신임 집행위원과 토의사항은 다음과 갓다한다

委員長 安昌濬(朝鮮)
庶務部 朴承杓(中央)
調査部 尹明濟(東亞)

討議事項
一、記者整理의件
一、規約改廢의件
一、委員選擧의件
一、事務所位置問題의件
一、財政樹立의件
一、郡內實情調査의件(禁止)
一、支局員採用의件
一、各支局模範記者表彰의件
一、各本社要望의件
一、水害罹災民救濟問題의件(禁止)

高麗體育會主催
全朝鮮個人庭球
來八月三十日을期해

【開城】개성고려체육회(高麗體育會)주최와 본사개성지국후원으로 오는삼십일 오전십시부터 수암산(水岩山) 코-트에서 제이회전조선 개인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바 일반선수는 좌긔규정아래 만히 참가해주기를 바란다한다

一、申請期日 八月廿九日까지
一、申請場所 開城東本町本會內
一、申請金 每組 一圓
一、賞品 優勝旗及卄圓副賞

汶山公普校同窓會

【汶山】문산공보교에서는 오는삼십일오전열시부터 동교강당에서 동창회총회를 개최키로되엿는데 주소를아지못한 졸업생에게는 안내장을발송치못하야 동교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는바이며 일반졸업생들은 다수히참석하야주기를 바란다고한다。

鍾紡全南工場
二千의 아가씨를차저서(一)
단잠을깨트리는 새벽의싸이렌!
午前여섯時半만되면벌서 무거운다리를끌고일터로……

光州支局 一記者手記

정얼에 특별교섭하야 무엇든봄 지국주최의 종연방직 전남공장(鐘淵紡績全南工場)단체 견학단으로한 자동차수대에 갈라타고 해상집 일행사십명이 팔월이십일 오후한시경이엿든바 때는마침 거리의 가로수도 짬을흘리면서 피곤한 얼굴로 조을고섯고 녹아내리는듯한 아스팔트우으로 다려나는 자동차까지도 숨이 가빠서헐덕이는 이원의 폭양은 한낫거리의 수은주를 치뜰려올리고잇는이찌는듯한 더위에 숨이터러매하게 확근거리는 공장속에서고운차게 도라가는 긔게의바퀴와생사를 가리하는 방직공장(紡織工場)아가씨들의 서름과울분은과연 어떠한것일가? 세상사람들이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긔매하게도 참담한 그들의 생활을 차저보기로하자 십오만평의긔지에 륙백만원의 거액을드린웅대한건물로 시가의 북편인 류정(柳町)일대를 출비하게차지하고잇는 종방전남공장(鐘紡全南工場)은 이천여명의녀직공과 오백여명에가까운 남직공을 부리고잇는 조선유일의 대기업소(企業所)이다

창공에 노피소슨 연돌에서는 이천여명의절문아가씨들의 애타는연기를 쉴사이어지 토하야울리며 아침저녁으로 광주천지를 요란케울리는「싸이렌」소리는 그들의눈물겨운애소를 구천에사모치게한다

그러나 이연돌아래에서 우렁찬싸이렌소리와함께 눈물을먹음고 피와땀을흘리는 그들의고역살이를 세상사람들은 모를것이다

대재벌의거문손에 억매게되야 이천오백여명의 섬섬옥수는 쉴사이업시 움직여서일년생산액사오백만원이라는 팡장한 광목(廣木)과 순수건을 짜내고잇다한다

그러면 이것의로동조건은 어떠한가?

우주의만물이 조롱에 잠겨잇는 고요한 새벽다섯시반이되면 벌서자리로돌흘러 피곤에시달려 답개잠들어잇는 여공들을 채쪽질하야 깨워서 주비통령하야 세상사람들은 아직도 단꿈을 꿈꾸고잇는 이때에 여섯시반부터 그들은 피곤한몸을 끄을고 일터로 끌려여가서는 쉴사이업시 돌아가는 긔계와가티 이순간의 겨를도업시 그야말로 인간이아니라 긔계그대로 움직이고잇다

정오의점심시간이란 빵조케삼십분이라고하지마는 그실내용인즉 전직공의수를 반에갈러서십오분식 밥먹는시간을 나누어교대(交代)하는데 자리에일어나서 몬지를씻고 일터에서 식당까지 가고오는동안이 벌서 십분을밧어잡어먹게되니 남어지 오분도 못되는시간에 어찌밥인들 마음대로 먹을수잇슬것인가?

그러고는 저녁여섯시반을 가르키는「싸이렌」이 울릴때까지는 꼼짝도못하고 열러를떠날수업서 감독의메운눈초리는 꼼짝도못하게지키고 잇다 (계속)

元山稅署事件 關聯 — 咸北아式蹴球

咸北아式蹴球
選手權大會盛況

【鏡城】함북도체육협회주최 제이회함북아식축구 선수권대회(第二回咸北아式蹴球選手權大會)는 지난이십이일 오후한시반부터 라남중학교(羅南中學校)교정에서 도내각지 십일개단체참가와 회장인 리성근(李聖根)씨 시축(始蹴)으로 개시되야 만여군중 참집하에 이십사일오전열시까지 전후 삼일간 접전을 거듭하야 결국라남군(羅南軍)이 우승하야 금번도 함북도축구선수권을 획득하게되얏는데 준결승(準決勝)전이후의 전적은 다음과갓다

◇準決勝戰
一、羅南大勝(茂山)
二、茂山2-4朱乙
◇決勝戰
朱乙1-3羅南

……되야 발목되산서에 류치되야 취조를 밧고잇다는데 그서에서는 여죄유무를 추궁하는중이라고한다

錦山一帶에橫行튼 늑대一頭또捕獲
崔元錫氏의苦心으로

【錦山】금산지방에서 「늑대」로 인하야 인축의 피해 오집여건과 이에 수회에 궁한 토벌비용이 륙천여원에 달하엿스며 지난팔월삼일에 군민오천여명의 총원으로 「늑대」의 근거지인 용문동을 포위하고「늑대」일두를 잡앗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 이여 각군포수가매일가리 계속하야 「늑대」잡이에 진력하고 잇스나 「늑대」는한마리도 잡지못하고 「늑대」의피해만 날이갈수록 더하는 이지음 금산군부리면관정리(富利面官亭里)에 거주하는 최원석(崔元錫)이가 지난팔월이십사일 새벽여섯시경에 동면불이리(不二里) 범바위재(虎岩峙)에서 세살가량되는 숫늑대한마리를 잡아 당국에 신고하엿는데 군으로서 현상금 사십원을 주엇가수리라하며 지사(知事)상금 오십원과 해수구제상금(害獸驅除賞金)십원은 도에서 오리라하야 일반의 화제거리가 되엿다한다

苦草行商老婆溺死

【博川】지난 이십이일오후두시경 박천군내 강에서 나히륙십세가량되는 로파가 익사한것을 발견하엿는데 신원을조사한결과 박천군박천면구진(博川面九津) 리씨(李氏)로 판명되엿는바 전기 로파는 이전부터 남편을사별한후 무의무탁하야 혼가한면의집에 동거생활을하엿스나 그들도 가세가 곤궁하야 동거할수가업게되여 할수업시 고초행상을하야 간신이 그날그날의 연명을 하여오든바 박천장을 보고 냉면장에 올른도중 무거운짐을지고 강을 건느랴다가 급류에 업드러저그와가티 참사한것이라한다

갈곳업는土幕民
驛前에서또逐出
都市美觀上等에防害된다고
驛에서咸興府에抗議

【咸興】도시미관을 손상한다는 리유로 이리저리로 쫓겨다니는 토막민들!·함흥부 반룡산(盤龍山)의중록(中腹)에잇든 토막민은 전부 금년봄에 함흥부청에서 부영주택지를 건설한다는 리유로철거(撤去)를 당하얏든바 그후에 갈곳이업서 헤매이고 잇든그들은전부 함흥역 긔관구(機關區)압 공지에 토막(土幕)을짓고서 잇시우로(雨露)를 피하고잇든바이번에는 도시역(驛)에서 도시미관과 려객하는사람들의 긔분을 상한다는것으로서 르지함흥부에 그들을 철거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얏다는데 대함흥의 건설에희생되야 이리저리로 쫏겨다니는 인생의행로 이들사십여호의갈곳은 과연어데가 주목된다

女子庭球戰
九月六日開城서

【開城】고려공론사(高麗公論社)주최로 오는구월륙일 오후한시부터 수암산코-트(水岩山)에서 제일회 전조선 개인녀자정구대회(全朝鮮個人女子庭球大會)를개최한다는바 신청자는 좌긔규정아래 만히참가해주기를 바란다한다。

一、申請期日 九月三日까지
一、申請場所 開城東本町高麗公論社
一、賞品 優勝旗及優勝盃副賞도授與하고特히一、二等入賞者엔往復汽車賃授與

深夜에怪漢侵入
未完成의殺人劇
强盜?含嫌?痴情關係?
犯人逃走、被害者重態

【北鎭】지난이십사일오전두시경 운산군북진면 교동(雲山郡北鎭面校洞) 김운삼(金雲三)의집에는 돌연어떠한괴한이 침입하야 직접살인을 긔도하엿슴인지 그안해와 가티잘든 전긔운삼을 단도비슷한무긔로 머리와 억개를 비롯하야 전신수처를찌르고 그자리에 혼도될뻔하얏든것이 소리를치며 박그로뛰여나가자 범인도 일이글른것을알고 곳웃방으로 뛰여올라가 잠근문을 깨트리고 다러나버렷는데 범인의 목적은 강도이엿든지 평상시에 원한을 품엇든자인지 또는 치정관계인지 일체를 예측할수업다하며 피해자는 생명만은 간신이 건젓스나 매우 중태에빠저 당지금광회사병원에입원치료중인데 경찰은 방금범인수색에 노력하고잇다한다

壓殺投池發覺
不義兒를分娩

【尙州】불의의아이를낫차 압살하야 못(池)가운데 던저죽인 요금의악행이 경북상주에서생겻다 사건의본인은 상주군리안면흑암리(利安面黑岩里)삼번지에 잇는 박재봉(朴在鳳)이라는미인여급인데 재봉은 열두살때에 일본내지에도항하야 그용모의아름다운것을 긔화로 여급의생활을하게되야 작년십이월까지 팔년동안을 계속하든바 자연히화랑을만나게되야 달콤한꿈을 꾸어오다가 작년팔월경에 임신된것을알고 고향에돌아와서 잇든바 지난팔월십칠일 오후 열시경에 남아를출생하자 자긔모의협력하야 입을틀어막아서 질식하게한후 근처못가운데 저버린사건이잇섯다 그후이십이일에 사체가곰박게떠게되야 지나는사람이발견하고 곳동면주재소에 신고하야서 동주재소에서는 곳본서에 급고하는동시에 범인을엄탐중 전긔 박재봉을 검거하야 취조한바 범행일체를 자백하엿다한다 그래서 지난이십삼일에 당지등천검사(藤川檢事)와 최사법주임(崔司法主任)이 삼성의원김긔석(三省醫院金基錫)씨를대동하고 현장과사체 해부를하고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代用作物조차全滅
二百萬圓의大損失
坪當平均三五錢의缺損으로
咸南四個郡民二重恐慌

【咸興】지난칠월중순 마침 이앙긔(移秧期)에 사십여일동안이나 대한발이계속되야 못갓내약 사천여정보의 답(畓)은 이앙을 못하고 그중약이천오백정보는할수업시 교맥(蕎麥) 대두(大豆)등의 대작(代作)을 하게되얏든바 그대작(代作)도 그후에혹심한충재(虫災)와 배수불능(排水不能)으로 전멸상태에빠져 이현농민들이 이백만원이라는막대한 손해를 보앗다고한다

함남도농무과의 조사한바를보면 영흥(永興) 문천(文川) 덕원(德源) 안변(安邊)의 네개군에서약 이천여정보의 답(畓)에 대작한 작물에 대하야 그수지(收支)를 예상한바를보면 평당(坪當)수지가 다음과가티 고원(高原)군은 [illegible]십이전오리 문천(文川)군은 [illegible]팔전 덕원(德源)군은 일원팔리 안변(安邊)군이 삽십이전팔리의 수입부족으로서 평균평당삼십오전의 손해를 보게되얏다고한다 이리하야 이것을 이천오백정보에 총계를하야보면 약이백륙십만원의 막대한손해를 보게되얏다는데 이러케되면 농민들은 벼도 못먹고 또대작(代作)의 손해등으로 이중의막대한 손해를 보게되야 극도의 공황에빠지고잇다

각군의평당수지(收支)는 다음과갓다。(坪當)

	支出	收入	缺損
永興	五三、九錢	[illegible]	三三、五錢
文川	五五、六	三五、六	二〇、〇
德源	一四五、三	四四、五	一〇〇、八
安邊	八〇、七	[illegible]	[illegible]

高靈의小作爭議
年復年激增하는
但作權移動은減少

【高靈】농지령실시후의 고령군하의 소작쟁의의 최근일년간통계를 군소작관에게 조사해보건대 조정건수가 작년도에는 사십오건밧게 되지안튼것이 금년은 불과륙개월동안에 사십건이나되니 이대로 나간다면 년내로 백건을 돌파할형세이고 소작이동건수는 작년도에 이백륙십일건이든것이 금년도에는 백팔십이건이니 다소간 줄어가는형편이나 어쨋든 고령은 타지방에비하야 너무나 지주와소작인간에 말성이 만흔곳이라하며 그원인은 모다지주의 무성의로 인한것이라고한다

沙里院有志들이
現金、衣類寄託
沙里院支局經由

【沙里院】이번조선의 대홍수로인하야 천여의갓가운 생령이희생되고 피、땀을흘려지은 농작물의피해는 물론 다정한집을일코 가장물을 물속에떠내보내고 부르짓는 동포의비참한사정을 연일지상을 통하야듯고여긔에 눈물을흘니는 아름다운특지가 매일본보사리원지국에 답지한다

사리원서리(沙里院西里)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는 오득룡(吳得龍)씨는 지난장날에 물건을 팔은금액일부 현금 십입원칠륙전을 이재지에게 보내달라고긔탁하엿고

사리원보정 박운렴(朴雲濂)씨가 경영하는 사리원양복점에서 점원들의 박한수입의 일부를 쪼내여 현금오원십전을 가저왓고

또 사리원에잇는 무명씨로부터 의복오점을 역시 재지에보내달라고긔탁하엿다

三南水災民을救助
遝至하는同情의淚

元山樓普校兒童의
分錢모은八圓餘
本報元山支局에寄托

【元山】지난번 삼남디령서지방의 수해로 이십만명의 이재민이 집과가장재물을 일코 밥먹을것과 집이업서서 가두와 길가에서 헤매고잇다는소식을 선생들에게서 어더듯고원산루씨녀자보통학교(元山樓氏女子普通學校)생도들은 참아 그 정경을 볼수업다고 손에한푼 두푼들고와서 동교선생에게맛기여 재지로 보내달나고、하얏다는데 동교에서는 지난이십오일 전긔천사들이 가저온돈 팔원사십구전을 본사원산지국에긔탁하야 재지로전달하여 달라고하엿다한다

利川光進學院生
五圓餘를寄托
本社利川支局에

【利川】금번의 삼남수재가 얼마나 심각한참상인은 날마다본보지상에 보도되고잇는바 눈물이잇고 뜻이잇는자의동정심을 자어내고 잇는이때에남달리 빈한한 가정에태여나서보통학교 조차 배움의 혜택을입지못하고도 오히려 배워야살것다는 강렬한 요구에 들뜨는마음을 바로잡저가는 사오간의 좁은 서당을 차저 안보의원을 계획하고잇든 리천군 면졸면 관고리(官庫里) 광진학원(光進學院)생도사십사명은 그학원선생인 정규헌(丁奎憲)씨를부터 삼남수해에 이야기를 듯고 자원하야 끼니의밥을줄여먹고 용돈을절약하야 모은돈 오원오십사십전을 재지에서 굶주림과 헐벗음에허우는 동모들에게 전하야 달라고 울며지 고려 지난이십사일 본보리천지국에긔탁하야 본사로보내엿다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雄基支局
位置 咸北雄基港
金昌俊
右任支局長

支局長 鄭鳳宇
右依願解任

謹告

光州支局
記者 崔甫善
右新任

谷城支局
玉果分局長 鄭東華
右新任

高靈支局
總務兼記者 文章俊
右新任

安東支局
總務兼記者 李壽杰
右解任

陝川支局
總務兼記者 兪浩然
右依願解任

鎭海支局
總務兼記者 金秉石
右新任

寧越支局
記者 金用鎬
右新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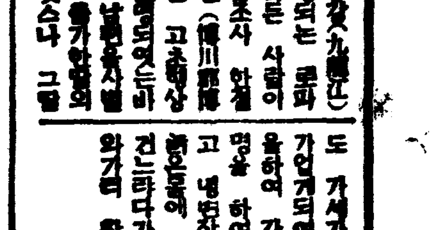
載寧支局
新院分局長 崔秉烈
右解任
新院分局長 閔元植
右新任

石岩支局
記者 金永濠
右新任

開城
第一回全朝鮮個人庭球
△時日 八月三十日
△場所 水岩山코-트
◇主催 高麗體育會
◇後援 本報開城支局

禮山
全朝鮮脚戲大會
▲時日 八月三十日(陰七月十五日)
▲場所 無限川邊
◇主催 禮山消防組
◇後援 朝鮮日報社禮山支局

安康
水災救護映畵의밤
▲時日 九月五日下午七時半
▲場所 池田商店
◇主催 朝鮮日報社安康分局



愛慾의彼岸 【86】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저를 따라오시지마세요。」

하고 혜련은 고개를 돌려서준상을 보앗다。준상은 머쓱해서 주춤하엿다。

「남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혜련은 쌀쌀스럽게 압흐로 걸엇다。

혜련의 준상의 말과 모양이 마음을 파고 드는것을 느꼇다。그러고 그것을 위험하게 생각하엿다。아모리 하여도 혜련은 준상에게 몸과 맘을 내던저주고십지아니하엿다。아니 준상뿐아니라 이 세상 아모에게도 몸과 마음을 내던저주고 십지아니하엿다。그러케도 미덥던 아버지조차도 못 밋게 된 오늘날、이 세상에서 제가 미들수잇는 사람、저를 마음노코 맛겨버릴수잇는 사람을 차자내일것 갓지아니하엿다。그러치아니한 사람에게 제 몸을 맛기는것은 깨끗한 제 몸을 더럽히는것만 가티 생각햇다。

혜련은 한참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앗다。준상은 아직도 그자리에 우두머니 서잇섯다。혜련은 준상에게 대하야 가여운 생각이 낫다。진정으로 준상이가 혜련을 그처럼 사랑한다 하면 혜련의 이쌀쌀한 태도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고대로 다 미들수가 잇슬까。설사 그 순간에는 참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아니할것을 담보할수가 잇슬까」

혜련은 이러케 생각하엿다。사람을 미들수 업는 혜련이엇다。

혜련은 덕원ㅅ강과 바다ㅅ가 합하는 한수ㅅ목에 생긴 모래섬에 섯다 바다는 아침햇비츨 바다서 빗나고 강물은 어젯 비에 붉어서 붉은 물ㅅ결을 보이고 잇섯다。모래톱에서 자던 거지들은 아마 비가 두려워서 어젯 밤엔 비각이나 공동변소에 숙소를 정한 모양이오 그들이 무엇을 끓여먹노라고 아궁이로 쓴 돌 두개가 연긔에 걸은 얼굴에 햇볕을 밧고 잇섯다。소들은 벌서 강ㅅ가 풀판에 나와서 꼬리를 치고 잇고、황새도 다른날과 다름업시 물ㅅ가에 한 다리를 들고 서서 먹을것을 엿보고 잇섯다。가슴패기 흰 도요새들이 혜련을 피하야 도요도요하면서 물ㅅ가에 밀려나오는 잔 고기를 줍고 잇섯다。

혜련은 모래섬에서 헤거니 먼 섬을 바라볼때에 마음에 갑작이 적막한 생각이 낫다。혜련은 나무 꼬창이를 주어서、물로 깨끗이 씻긴 모래우에、

「누군지 모르는 그이를 그리워하는 나」

라고 썻다가 「나」자를 지우고 「마음」이라고 고첫다。

써노코 읽고 생각하니 그것은 어떤 시인의 시에 잇는 구절 가텃다。

「고달픈 이 몸을 던질、
어느 가슴도 잇고시퍼라」

하고 써노코는 두어번 읽어보고는 누가 보는가시퍼서 발로 슥슥 비벼버렷다。

그러나 글자를 지어버려도 그 마음에 새겨진 노래는 지어지지를 아니하엿다。

How can I Leave thee!
How can I From thee Part!
Thou only hast my heart,
Dear one believe.
Thou hast this soul of mine,
So closely bound to thine,
No ther can I love,
Save thee alone.

이러한 노래를 생각해 보앗다。정말 그러한 사람도 잇슬수 잇는가。그이만이 내 사랑을 가지고 나만이 그이의 사랑을 가진、그러한 사랑도 잇슬수 잇는가。그이의 혼과 내 혼이 하나가 되어서 나는 그이 하나밧게는、그이는 나 하나밧게는 떠 사랑할수 업는 그러한 사랑도 잇는가。

And she is a'the world to me,
And for bonnie Annie Laurie,
I'd lay me doon and dee.

나를 그이의 「왼 세계」로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기를 아끼지아니하는 그러한、「그이」도 잇슬수 잇슬까。

「그것은 모도가 시인의 공상이다。이 세상에서는 볼수 업는것이다」

하고 혜련은 모래우에 써던것을 다 지어버리고 닐어낫다。

朝鮮內金融體系

普銀의大銀行集中은 朝鮮實情上絶對反對

◎……申泰璿

지금까지 말한 普銀統制強化에對하야 다음과 가튼 세가지點으로써 私見의 結論을 삼으라고 한다

첫재 오늘에잇서 普銀統制強化에 對하야 朝鮮總督府當局者는 어떠한態度를 取하고 잇는가 하는點이다 即 오즉殖銀行說明을 準하고 다만 今井田前政務總監으로부터 「朝鮮內 金融機關는 相當히 統制가 되여잇다 그러나 압으로는 이分業制度를 一層明確히할必要가 잇다」 고 말하엿다 그眞意가都邊에잇는지 斷定的으로 말키어려우나 或은 이것은 金融機關統制를 더욱 強化할必要가 잇다는 一片的이 아니가 생각케한다。

×

그런데 金融機關 分業制度의 確立이라고 하지만 目下朝鮮內 金融機關의機構를보면 이미 相當히 分業的으로 되여잇다 即 朝鮮의中央銀行인 朝銀、産業金融의殖銀、貯蓄의貯銀、信託業의信託等이 特殊法令에依하야 各各單一機關으로 되어잇다 오즉 普通銀行의七個銀行과 所謂 三個支店銀行 또 庶民金融의金組가 잇슬뿐이다 그러면 이分業制度의 確立이라것은 或은 普銀、支店銀行과 金組를 가리켜서 한말인가 생각할수도잇다 그러나 이中에잇서 支店銀行에對하야는 이미 十大銀行支店의營業上의거 그것가튼을 내여노앗스므로 이에對하야 새삼스럽게 하려함이 아닌것이 分明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타고해서 散在한 金組에對한 統制가 하면 이것은 그를 意味한것이 아닌것이다 예ー그러나고하면 所謂下層金融機關의統制와 그機構統制를 目標로하고 그範囲에 注力하는터인만큼 이金組의縮少는 到底히 생각도 할것이 아니다 그러면 結局 그分業制度의 確立이란것의 目標는 普銀에 뭇것이라고 볼이 過當가 업슬것 갓다。

×

둘재 所謂都市信用組合의 一種이라는 無盡會社에 잇는 金融組合은 實際에잇서 高利貸金業者와 얼마 相距가 안되는 運用을 하고잇스며 또는 그뿐만 아니라 都市金組까지 設置하야 普銀行의 領域을 侵入케하도록 하는 精神이 어듸잇는가 하는點이다 朝鮮이 아니고는 볼수업는 變態的金組가 생기게된後에 普通銀行의 貫徹은 數字上으로 顯著한 增加를 보히고잇지안는가 지금에잇서 이것을 縮少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즉 어런 金

組의 擴充에만 注力하는 反面에 七個普銀까지 一層縮少케할 機運이 濃厚한것은 너무도 一方的 偏重의 感이 잇고 또는 朝鮮內 中小商工金融에對하야 매우 無關心하다고 말치 안을수 업게된다 그러므로 지금에잇서 金組의大擴充時代이며 또는 그와反對로普銀의 大縮少時代가 本格的展開를 보히고 잇는것이 事實이다。

×

셋재 普通銀行의 銀行統合은 어떠 그附與條件이 거이는 그的效的의 狀態에 잇이것이 어느때에 實現이 될이러고할수업스나 萬若에는 日本銀行中心으로 되고말면 實現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萬若 이것이 實現된다면 이때에는 朝鮮人 一個普銀이 大銀行에고저고 말것이라고한다 그러므로 或은 實現되면 이때에는 朝銀中心의 大銀行이 생기게 될것이라는 豫想을하는傾向이잇다 그러고 從來의 整理合同되는 그性質이달을것을생각지안을수업다。 따라서 이런 普銀統制強化가 朝鮮에 잇서 整理合業者가 不良을救濟키爲한 整理合同이 아니라 結局 銀行側의 任意合併을 되이게 될것을 밝히둔다。

×

이에잇서 朝鮮內普銀의大銀行集中에 對하야 反對의 私見을 갓는다 예ー그러나하면

(一) 中小商工業者에 對한 金融은 世界大戰後 企業合同의 影響을 밧고 또는 銀行合同의狂瀾으로 그圓滑을 缺하엿든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圓滑케하는데에잇서는 中小商工金融機關의 擴充으로써 金融梗塞을 막을수에 잇다

(二) 더구나 朝鮮에 잇서 中小商工業者는 거의 全部가 實力이 貧弱한 朝鮮人이다。 만약에 普銀을 大銀行集中으로 한일것에는 朝鮮人中中小商工業者金融의길은 一層더 梗塞케되는 結果에 일을것이아니가 하는不安을 갓는때문이다(完) (寫眞은 朝鮮金融組合會)

今年의朝鮮米作觀測

凶作念慮濃厚 需給關係不安

清算米暴騰으로新高價出現 政府의買換無反響

米穀委員會의 白米二百萬石 買換決定第一次拂下 五十萬石을 不遠에하기로 決定한때문으로 二十五日後場止後의 各地清算止後 氣配는 二十錢內外低唱이엇더니 廿六日아츰에는 朝鮮米의 不作과 需給關係不安等을 豫想하야 三對로 各地가 昂騰하야先物은堂島三十二圓七十九錢으로 新高價를 나타냇다

全南北은大豐作

八月十五日現在米作況을 廿六七日發表豫定

新米穀生産高調査要綱에 依한八月十五日現在 米作況의 報告는 二十六日까지에 各地方의報告를 收合하야 二十七日 初登廳할南總督의 決裁를바더서 即日或은 二十八日에 發表될터인데 今年은 冷旱이兼한후에 最近에는降雨가甚하야 一部水害地의 被害를 除하고라도 日照의不足其他條件이 極히不良한듯이傳하엿스나 其實最近總督府에會集된各道의 綿作技術官를通하여 들어온 情報를綜合하면 그後雨量이豊富하여 全南北은 一般的으로大豊作이라하고 慶南北도 良好하고 其他道도 大體로조흐나 中部만이多少不良한形便이라고하며 問題는 最近까지에 繼續되는降雨때문에 開花에被害가잇슬것과또 稔孕이不良해질것等이 念慮되며 速히忙晴하여 日照關係가조와지지안는다면 크게減收를免치못하리라는것이다

政府所持朝鮮殘米

約二萬石을拂下

鎭南浦、仁川、群山、木浦、釜山의政府米約二萬石은 다음과가티 指名拂下키로되엇다

一、銘色 八月二十六日
一、保證金接受 同二十六日
一、拂下申請 同二十八日
一、拂下決定 同二十九日

各地數量

▲仁 川 二〇、〇〇〇叺
▲群 山 一一、〇〇〇
▲釜 山 八、六〇〇
▲木 浦 六、〇〇〇
▲鎭南浦 六、一〇〇
▲合 計 五一、七〇〇

釜山賣却數量

【釜山電話同盟】廿五日 米穀委員會에서 決定한 政府所有米 賣却數量 五十萬石中 釜山의 賣却은 昭和八年古米로 玄米二等四口、三等三叺、三等六口四千二十五叺、四等二口千三百七十二叺 合計八千五百叺으로 釜山의拂下實現은 今年에 이것이最初로一般正米不足을 緩和하는때인만큼 期待된다 그러고 이번의賣却은 從來와 달리하야 農林省의 指名入札形式으로 隨時契約키로되엇다고

商船西朝鮮配船

大阪商 ……七、十一의 四月間에 各其竣工할豫定으로 竣工되면直時阪神仁川間에 就航케할터이라한다 新船으로다 四千噸級速力十三노트半의 優秀船으로阪神仁川間을 從來보다 一日短縮하야 四日間에 輸送할수잇다하며 四隻은往復航路로서 이것을幹線으로하고 群山、木浦、龍塘浦를連絡할 支航路를따로이開設하야 阪神、仁川間을 極力스피ー드・엎할方針인模樣이라한다

木浦現拂問題

急轉解決될形勢

木浦의現着拂問題은 丸木協會側이 形勢의不利를 살피고 最近軟化하야大體 다음과가튼 條件으로 解決케될모양이라고한다

一、朝鮮米輸送協會關係의朝鮮米運賃은 着拂로함
一、五百噸以下의 發動機積은現着拂를 從來대로 認함

朝鮮産業調査會

廿六日에官制其他決定

朝鮮産業經濟調査會는 十月中五日間에亘하야總督府에서열기로되고 二十五日의 閣議에서 正式官制를 決定하엿스므로 總督府에서는 廿六日 同調査會規程과 諮詢事項을 發表하는 同時에 總督府外委員 五十一名에交涉키로 되엿다고 한다 朝鮮內民間十九名、朝鮮外民間側八名 朝鮮外官廳側十八名、學者六名

一、農林水産業에 關한件=農林水産業의 開發은 食糧及工業原料品의 供給上、朝鮮內最大多數住民의 生活安定上 가장緊要함으로써 그改善伸展方策에對한 意見을 求함
二、資源에 關한件=朝鮮의豊富한 鑛物資源과動力資源의開發利用方策에對한 意見을 求함
三、工業에關한件=朝鮮의 産業地及工業新興의趨向에 順應하야 그振興調整方策에對한 意見을 求함
四、商業及貿易에關한件=資源開發及産業振興의 趨向에順應하야商業及貿易의 改善伸展方策에對한意見을求함
五、交通에關한件=産業開發及貿易振興의趨向에 順應하야 海陸의交通運輸及通信施設의 整備擴充方策에對한 意見을 求함
六、金融에關한件=資源開發及産業振興의 趨向에 順應하야 金融施設의 改善方策에對한 意見을 求함
七、産業敎育에關한件=産業經濟의伸展의 趨向에 順應하야 人的資源의 向上充實을 圖키爲하야 敎育施設의 改善方策에 對한 意見을 求함

調査會의規則

▲第一條 朝鮮總督府에 朝鮮産業經濟調査會를置함
調査會는朝鮮總督의諮問에 應하야朝鮮의産業及經濟에關한重要事項을 調査審議함
調査會는 前項의 事項에對하야 朝鮮總督에建議함을得함
▲第二條 調査會는 會長一人及委員若干人으로이를組織함
▲第三條 會長은 朝鮮總督府政務總監으로써함
委員은 關係各廳高等官及學識經驗잇는者中에서 朝鮮總督이 此를 命하고또는囑託함
▲第四條 會長은會務를總理함
會長이事故가잇슬時는 會長의 指定한 委員이其事務를代理함
▲第五條 會長은書面으로써 委員의意見을徵함을得함
▲第六條 會長이必要하다고 認할때는 朝鮮總督府部內高等官또는適當하다고 認하는사람으로하여금 會議에出席하야 意見을陳述케함을 得함
▲第七條 調査會에幹事를 두고 關係各廳高等官中에서 朝鮮總督이 이것을命하며 또는囑託함
幹事는會長의指揮를 바더庶務를 掌理함
▲第八條 調査會에 書記를두고 朝鮮總督府部內職員中에서 朝鮮總督이 이것을 命함
書記는 上司의指揮를바더 庶務에從事함

重要商品世界事情

小麥減收豫想 世界的天候不良

今年度는 世界全般的으로 天候가 不良한때문에 主要產國인 加奈陀와 北米를 비롯하야 歐洲、東洋의 各國까지 一齊히 作況이 不良하야 減收豫想이 確實케되엇다 即 北米產地는 今年 旱害의 大旱魃로 今年度의 收穫은 六億三千萬부쉘로 平年作의 八億에 比하야 二億부쉘減收에 該當하고 國內消費量 六億八千萬부쉘로보아 五千萬부쉘의 供給이不足케되고 一面으로 加奈陀의 收穫豫想도 平年作에 比하야 一億부쉘減收의 二億부쉘이므로 國內消費를 빼이면 輸出餘力은 겨우 一億六千萬부쉘에 不過하다 이에 南米의 諸國、濠洲等의 收穫高豫想에서 算出한 世界의 總輸出餘力은 輸入總需要의 五億二千萬부쉘에 比하야 六億부쉘程度에 不過하고 或은 世界需給狀態가 不均衡케될 念慮가 생긴다。

◇

一面 日本內地市場도 對滿通商擁護法의 發動에 依하야 濠洲小麥輸入은 杜絶狀態이며 또 收穫은 前年度보다 五十萬石減의 九百十六萬石程度의 減收는 豫想된다

經濟界消息

○貯銀二支店十一月開業=貯蓄銀行에서 新設키로決定한 群山木浦支店은 二十五日 總督府에 正式認可申請을 하엿스므로 그認可를 기다려 開設에 着手할터인데 十一月初旬으로 될모양이며 店舖는 兩地가 모두元十八銀行支店店舖를 買受하야 使用키로되엿다고

取引停止 (八月二十二日)

貸金業 京城府初音町四四番地 鈴木俊五

經濟寸鐵

○지리한 장마에 마음조차 지속하나 오늘은 明朗한 뉴스만 적어보자
○店員을 保護키爲하야 强制休日과 閉店時間制限을 하리라는것이 그一
○棉花每斤 九錢以下일때는 差額을 全額補助하리라는것이 그二
○二者共히 大衆을 爲한 適切緊急한것들 하로밧비 實現되기를 바랄뿐

商況 (廿六日)

株式 諸株一齊上進

前場强保 前場은 鐘新百六十圓八十錢으로 上伸되엿는 依然强保程度의閑散이엇스나 東新은 百二十三圓三十錢 寄引同價 日産七十八圓七十錢 朝新三十一圓八、九十錢間細刻이엇다

後場上進 後場은 諸株一齊高이엇스나 東新百二十四圓五十錢 大新六十六圓九十錢 鐘新百六十一圓五十錢 日産七十九圓四十錢 日産二十六圓丁 朝石三十六圓二十錢 朝新三十二圓丁에好勢이엇다

大局依然樂觀

西班牙問題로 即時歐洲戰亂에擴大하느냐안느냐는것은 速斷할일이아니지만 當分世界를 擧하야다만軍擴을中心으로한것이 잇슬뿐이다 國策決定 豫算查定期에直面하야 아즉도 前途波瀾을 免이라겟스나 큰變動이 잇슬것이아니오 增稅도今日에와서는 悲觀할것이아니다 低金利의 徹底 局的으로는 依然樂觀할수잇다 것다

上長取組「賣」 下長取組「買」

大阪市場 短期東新에잇서 奇妙한現象이잇다한다 即十六日의反百二十六圓八十錢에서 例의當所株上場禁止說에 依한 休會를지나서 二十四日과 二十七日에百二十圓四十錢으로 떠러지고 八月五日의 五圓九十錢까지 伸하고나서 다시〇圓臺로 떠러지고 四圓을 狙하야 再轉落되바고 그의 取組關係를보면 取組增에依하야 天井치고 取組少에 依하야底入되다는 東新의 常勢은 前正當强賣케되고 目前의으로도 下長取組賣、上長取組買라는 定石이 꺼꾸러저서 下長取組買、上長取組買가 有利한것을 暗示코잇다 一步突込하면 上長取組의 取組高減少되데를 賣하고 下長取組의 取組高增加되데를 買함이 有利한것을 左表에依하야 알수잇게되어잇다한다

日	賣方	買方	敢組高
二十四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五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七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八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九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十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十一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三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四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五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七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八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九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一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二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取引高一八〇枚 ▲日滿아루미 [illegible] ▲北樺太鑛業 [illegible] ▲東滿豆革 [illegible] ▲滿洲煙草 [illegible] ▲王子紙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池貝鐵工 [illegible] ▲富士木材 [illegible] ▲朝鮮製所 [illegible] ▲東亞煙草 [illegible] ▲昭和工業 [illegible] ▲昭和人絹 [illegible] ▲滿洲炭鑛 [illegible]

東京國債壌況

【東京電話同盟】內國債는依然閑散이나 米貨債高를 反映하야 甲號五分의 五錢高로 他도頑强氣味를 呈하고 佛貨債도 十錢高引締이엇다 米貨債는 繼續하야 割低의 買物이 繼續하야 六分半、五分半共히 三、五十錢續進하야 好調를示하야엇다 ▲甲五分利 一〇一、一五 ▲……

市場六感

株……今前場은 鐘新이百六十圓臺로 上進된外는 依然閑散일뿐 底强味는 잇지만……▲國策七項目은 二十五日閣議서 決定되엿스나 具體的實行이아즉도 問題로 不安未解消▲世界的財政膨脹 通貨大增發의傾向은 大戰爭勃發까지到底히 終止할것이 아닌즉 財界前途는 樂觀이란것이 大局的强氣觀▲九月이닥처오는데 如何?

米……一、兩日內에 朝鮮稻作狀況을 發表하기로 되엇스니 그發表의如何로 又復一波瀾을 惹起?▲政府米二百萬石拂下를 決定發表하엿슴에도 市勢는意外頑强▲要하면 拂下는 朝鮮材나 買上은 滿材이엇다▲그러며 當中限 先限强으로當先中先의 鞘가漸次縮少▲今朝正米界로 定期의反撥을 受하야 十錢이나反高▲그러치만 拂下를 먼저하게하는 關係上不遠한 時日에 訂正市勢가 展開되고야말것이라는說도잇다

期米 颱風念慮昂騰

前場反撥 昨後場阪地에 三十圓二十五錢八十錢高 共히 三十圓二十九錢에 擧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政府米二百萬石買換拂下의 影響이 엄서 도리혀 買氣를 助長하야 三十二高로 擧을 始한後 阪地七十九錢까지 强含을 伴하야 最高五十五錢으로 四十九錢에 擧을 止하엿다

後場伸惱 後場은 五十錢 二丁高始擧後 高價五十錢에 四十六錢에 止擧하다

買換拂下에도 市勢는無影響

旣報한바 米穀統制委員會는 昨二十五日 午後三時부터 開會하고 政府米二百萬石을 買換하기로한後 爲先 五十萬石은 即時賣却하기로 決定發表되엇다 此情報를 接한 各地市場은 一段瓦落을 告할것으로 豫期하엿든바이나 今朝에 至하야 各地市勢는 意外强味를 添하야 當中은 比較的伸惱로 先限은 約二十餘丁의 反撥을示함에 至하엿다 要하면 拂下는即八、九兩月에 亘하야實行하게될으로 端境期의 需給不安을 緩和케하며따라서 渡米蒐集에또 엄마큼容易할수잇다는 臆測아래當中엔 入的買物이 無하야 自然伸惱의 態를 呈하고 先限은 即新穀期入한後에 買上하게되는 關係로 買物이 簇出한光景인데 今期阪地……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好調

【大阪電話商通】昨日賣却發表後 低氣配이엇스나 今朝는 各地豪天과 颱風襲來念慮로 買氣助長

大阪國債市場

一回四分 不申 ▲二回四分 一〇一、六五 ▲佛貨四分 一九八、四〇
▲甲五分利 一〇一、一三 ▲第三五分 一〇一、四〇 ▲二回四分 一〇一、七〇 ▲一回四分 一〇〇、二〇 ▲佛貨四分 一九八 ▲米貨六分半 四二、一〇

今日財界 (廿六日)

◆米 仁川正米 先渡 三等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 棉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開花期의天候 朝鮮더욱不良

中先의 鞘는百五十十內外로 當限에對하야는百十十未滿으로 縮少한바되엿다

二百十日을 目睫에둔 天候는 一週日以來 陰鬱한 雨天을繼續하야 甚히 開花期의 悲觀材料가되고잇는 現象에잇다 仁川觀測所의 發表에依하면 新義州附近에 小低氣壓이 잇서 中部以北은 曇天에 豪雨來하고 颱風은 七百三十二미리로 더욱發達하여 今朝 東經百二十五度北緯二十七度의 支那海南部에잇서 進路를北北東으로 變하야 北上할으로 南西諸島는 曇天으로 九州地方은 降雨中이다 그러데 颱風의北進에딸아 本日中漸次半島에 接近하게됨으로 南鮮은 그影響을바더 風雨가 强할것이오 中部以北은 豪雨가 될터이라하며 萬一颱風이도다시北東으로 轉換하는때는 南鮮一部와 九州方面에까지 侵하게될지도 亦未知이라고한다 上記와如히 開花期의 天候는朝鮮의 惟獨不良함으로 朝鮮의平年作도 될것이라는 說이 濃厚하다

各地正米

하야 期米의 硬調으로 九州側 地場에 買向되어 上新後小口의 買物로 逆行하엿스나 高値에는 買物不添이오 利喰賣를 하야 一段氣味이엇다

◆主要賣買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京城底堅 各地天候不良이오 期米高放으로 氣配十錢高唱 ⊜三等三一、四五 四等三一、一五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少堅 連日降雨로作況不安濃化이오 拂下에不拘코市勢 少堅이엇다 ⊜三等三一、四五 四等三一、一五 一等白米一三、七五

釜山伸惱 各地天候不良과 定期昂進을參하야 商談이比較的 잘되나 日本內地、朝鮮米의拂下 豫聞되어 市況이伸惱이다 ⊠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八〇

大邱硬化 昨夕五十萬石의 拂下發表이나 南上念慮로 人氣는逆行하야硬하고 風雨來로 氣配二十錢硬化이엇다 ⊠三等三一、三〇 四等三一、〇〇 一等白米三三、四五

木浦氣重 颱風念慮로定期는一轉高騰步調이나 日本內地米朝鮮米의拂下發表로 買氣不旺이오 銘柄이다 ⊜三等三一、一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三三、〇〇

群山堅調 連日降雨로 作況悲觀되고 持米側은 容易히 賣物을出치안엇다 昨夕發表한拂下도 市勢에影響이업고 颱風襲來念慮로 反對로十錢引締이엇다 ◆三等三一、〇五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一四、〇〇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光山 米 仁川 東益商店 株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仁川 福 期米 吉村取引店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金.銀.白金 德 地方注文代金引換取扱 力德城京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②3939 振替京城234

金融 (廿六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 (廿六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廿六日)

◆京城綿系布市況◆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綿糸布◆ [illegible]
◆日本麥粉市況◆ [illegible]
◆滿洲産況◆ [illegible]
◆大連特產市況◆ [illegible]

株式 (廿六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米 (廿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各地正租市況◆(單位錢) [illegible]

商品 (廿六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外國期米◆ [illegible]